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3 **3/4**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
FAX : 2275-8506
e-mail:kdta@chollian.net
홈페이지: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둡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지 아닌지,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으로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귈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바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창간 92호 2003년 3/4월호

창간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이윤경/

목은이 황미혜, 김희경/펴낸날 2003년 3월 15일

2 권두언	다시 일어서는 봄!	김명선
4 보육정책	2003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	편집부
15 기획시리즈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자리찾기 (1)	심선경
19 특별기고	적극적인 보육, 일련 보육으로의 전진 - 포괄적 보육서비스	황미혜
30 현장교육 1	어린이 생태교육의 이해	부산 아이들세상 어린이집
37 현장교육 2	우리그림 (민화)그리기	백춘하
46 2003 정기총회 이모저모	총회참가기 1	하미선
48 2003 정기총회 이모저모	총회참가기 2	임미화
50 2003 정기총회 이모저모	고별기	이기원
52 2003 정기총회 이모저모	신임자부장 소개	편집부
55 한일보육교류	한일보육교류연수 회의보고	이강선주
57 새내기인사	새로운 기회	김미옥
58 인물탐방기	최현숙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임남희
60 좋은 그림책소개	모기와 황소	하연주
62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안산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아이들의 이야기	김실이
64 육아일기	학교에 가는 소년이	전경숙
66 세상읽기	전쟁과 아이들	이윤경
68 평화를 꿈꾸는 보육	전쟁은 아이들의 생명과 꿈을 빼앗습니다.	서정은
70 목소리	저자체의 부당한 승급연기	이인희
72 상담실 Q&A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보육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편집부
74 새로운 세상과 만나기	봄날의 나른함, 주말에 가볍게 만들어 먹는 달걀밥	김희경
78 알림란		편집부
79 보육계풍향		편집부
82 소식과 소식		편집부
91 편집부에서		편집부

다시 일어서는 봄!

김명선 · 본회 신입공동대표

살갓에 와 닿는 바람의 느낌에서도 봄기운이 뚝뚝 묻어옵니다.
열심히 살아온 지낸 해의 열기를 이어 올 해도 힘찬 시작을 다짐해봅니다.
농부가 씨뿌려야 할 때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듯, 어떤 일이건 시작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옳은 결실을 거두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 자신의 자리에서 기운찬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2003년 올해 우리 보육교사회는 뚜렷한 꿈을 갖고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꿈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험겨움 속에서도 설레고 희망차리라 생각합니다. 사람과 조직 모두에 활력과 새로움을 주리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꿈을 형상화시켜 구체적으로 그려봅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들에 대해 그려보고, 꿈의 실현을 위해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펼쳐냅니다.

"엄마에게는 일할 권리를! 아이들에게는 보호받을 권리를!"
돌이켜보면 지난날 우리 보육교사회가 오래도록 보듬어왔던 슬로건 속엔 교사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빈민지역 여성의 생존권과 맞물린 양육 문제의 해결과,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해결을, 그 속에서 방치되는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헌신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보육문제의 해결 과제 속에서 교사 자신의 문제를 댄 채 아이들의 권리와 일하는 여성들, 부모의 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이는 물론 그 시기 보육문제에 있어 중심과제였으므로 우리는 이를 우리의 사회적 소명으로 기꺼이 받아 안아 왔습니다.

우리는 아이와 교사, 부모가 함께 행복해지는 보육현장을 꿈꿉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유년기의 권리를 인정받으며 아이다운 삶, 온전히 그대로를 지지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미끼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알파한 장사꾼들의 불모가 되어 경쟁과 속성재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아이들의 권리와 자발적 성장의 시간을 앗아가는 상업적 현실과 세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걱정 없이 아이들을 양육하며,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능력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는 보육노동의 가치, 돌봄의 가치를 인정받고 지지 받는 세상을 꿈꿉니다.

교사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만으로는 더 이상 보육현장을 건강하게 떠받쳐 낼 수도, 보육의 질을 담보해 낼 수 없음을 우리 사회가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사가 보육의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옹골게 가지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심문제라 할 것입니다. 좋은 교사들이 맘껏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쳐 나가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아이들 속에서 꿈을 펼치며 보육현장 속에 우리의 뼈를 묻을 수 있는 주대 있는 보육교사의 미래상을 세워내고 싶습니다.

교사들의 근무환경은 곧바로 아이들의 보육환경과 긴밀히 연관됩니다.

시설형태나 원장의 선심에 따라 제멋대로 천차만별인 교사처우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공동육아나 놀이방이나 어디서 일을 하건 교사의 노동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모든 아이들을 최선으로 잘 키워내는 역할을 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보육교사들의 직업적 성장 발전과 우리아이들이 최선의 환경 속에서 보육 받을 권리는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전국 5만여 보육교사들이 보육현장에서 자기 일의 주인으로 보람과 행복 속에서 우리의 후대들을 키워 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보육교사회가 요구받고있는 분명한 과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체보육교사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우리 자신을 위한 희망이 되기 위해선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을 뛰어넘어 보육교사 대표조직이라는 직업적 대표성과 대중성을 획득해야 합니다.

조직의 발전적인 전망을 내오기 위한 조직전환에 대한 논의와 고민의 시간들, 바로 우리가 만들어 낼 새 길에 대한 희망 찾기의 과정들은 결코 쉽지않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에 겨울지라도 보육에 대해, 또 아이들과 이 길을 함께 가는 전체 보육교사에 대한 깊은 사랑과 낙관적인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고단하고 험잡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람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가진 건강성을 잃지 않고 서로의 땀방울을 닦아주며 기쁘게 우리의 사명을 다해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험난한 고갯길을 신명으로 함께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총회에서 내세운 "나를 새롭게! 조직을 새롭게! 꿈을 위해 도약하는 2003년!" 이란 올해의 슬로건을 회원 자신의 화두로, 또 조직 전체의 화두로 삼으며 나 자신과 우리의 조직을 돌아보며 나와 조직에 대한 사랑과 자랑을 안고 한해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의 당당한 미래를 한국보육교사회의 이름으로 개척해 나갑시다. 회원들의 의지와 힘으로 만들어냅시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함께 헤쳐내는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키며, 아름답게 성장시켜주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지혜를 짜내고 힘을 보태 나가야 할 중요한 시간이 될 올 2003년, 회원들의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고 평화롭길 바랍니다.

2003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

정리 편집부

2003년도 보육사업안내의 내용 중 변경되거나 신설된 내용, 또는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보육료 지원 관련 내용

기본사항

○ 보육료 구분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 국고보조단가를 기준으로 예산(국고 및 지방비)에서 100%를 지원 받는다.

■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 국고보조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국고 및 지방비)에서 40%를 지원 받고, 나머지 60%는 보호자로부터 수납한다.

■ 일반아동 보육료

-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결정된 보육료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한 후, 신고된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 보육료 반환

■ 입소후 15일(아동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공휴일 포함)이상 보육한 경우 보육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15일미만 보육한 경우 해당 월에 수납한 보육료의 50%를 반환한다.

○ 입소료 반환

■ 입소후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1월 미만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한다.

○ 보육료 적용 특례

1)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 3세 이상 보육료의 50%를 적용한다.

※ 방학기간 중 일반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종일제 보육을 실시할 경우 3세 이상 보육료의 100%를 적용한다.

2) 장애아 보육료

■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

- 중증장애아(장애등급 1~2급, 3급 정신지체·발달(자폐)장애인) : 2세 미만 아동 보육료를 적용한다.

- 경증장애아(중증장애아를 제외한 장애등급 3~6급) : 2세 아동 보육료를 적용한다.

■ 장애아는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장애아 진단서(법정양식)를 제출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취학장애아의 방과후 보육료는 장애아 보육료의 50%를 적용한다.

3) 야간 보육료

■ 상시 24:00까지 보육은 보육료의 120%를 적용한다.

■ 일시적 야간보육은 기준시간 초과보육료를 적용한다.

■ 상시 24시간제 보육은 보육료의 150%를 적용한다.

■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 산출에 :

- 24시간(금일07:30~익일07:30) 보육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주간보육료와 야간보육료(주간보육료*가산율)를 합하여 산출함

- 3세이상 아동을 24시간 내내 보육하고 있는 경우 주간보육료 125,000원과 야간보육료(187,500=125,000원*150%)를 합한 금액인 312,500원 범위내에서 보육료를 수납할 수 있음(국고보조시설 수납기준)

4) 기준시간 초과 보육료

■ 종일제 보육료를 기준으로 20%를 가산하여 초과보육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 산출방법: (종일제보육료(월)/(26일×12시간)) × 120% × 초과보육시간

5) 휴일 보육료

■ 종일제 보육료를 기준으로 70%를 가산하여 휴일보육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 산출방법: ((종일제 보육료(월)/26일)) × 170% × 휴일 보육일수

6) 시간제 보육료

■ 종일제 보육료를 기준으로 보육일수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산출방법: ((종일제 보육료(월)/26일) ÷ 12시간) × 시간제 보육시간 × 보육일수

7) 주·야간 혼합 보육시 보육료 적용

■ 보육시설에서 주·야간 혼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육기준 시간(07:30~19:30)을 기준으로 19:30까지는 주간보육료를, 이후는 야간보육료를 시간당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3세 이상 아동을 16시~23시까지 시간연장 보육하고 있는 경우 주간보육료(125,000원)를 기준으로 3시간 30분(16:00~19:30)과 야간보육료(150,000=125,000원*120%)를 기준으로 한 3시간 30분을 합한 금액 범위내에서 보육료를 수납할 수 있음

- 보육료 산출예시: [125,000원/(26일×12시간)×3.5]+[125,000원/(26일×12시간) × 120% × 3.5] = 3,085원/일 ⇒ 80,210원/월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구분

1) 법정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아동이 수급권자인 경우 포함)
-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 아동복지시설 취학 전 2년까지의 아동

2) 기타 저소득층 아동

■ 지원원칙

-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에 의거, 기타저소득층 보육료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우선순위

- ① 맞벌이 부부 가구로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 ② 편부모 가정, 보훈가족, 결혼가정의 자녀 등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 ③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3) (신설) 취학아동의 미취학에 따른 보육료 지원(저소득층 자녀에 한함)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하지 못한 저소득층 아동은 가구별 소득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단, 취학유예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 기타저소득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기준	105만원이하	125만원이하	140만원이하	158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120% 적용(7인가구: 176만원)

- 가구원의 범위: 주민등록상 영·유아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직계존속(영유아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부모, 형제자매)을 말하며, 가구원수에는 영유아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아동의 부모는 보육대상 아동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003년도 기준은

가구원 수	3인이하	4인	5인 이상
소득기준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 정부지원 보육단가

1) 법정저소득층

(단위: 원)

구분		계	국고	지방비
2세미만	서울	243,000	48,600	194,400
	지방		121,500	121,500
2세	서울	201,000	40,200	160,800
	지방		100,500	100,500
3~4세	서울	125,000	25,000	100,000
	지방		62,500	62,500

2) 기타저소득층

(단위: 원)

구분		계	국고	지방비
2세미만	서울	97,200	19,440	77,760
	지방		48,600	48,600
2세	서울	80,400	16,080	64,320
	지방		40,200	40,200
3~4세	서울	50,000	10,000	40,000
	지방		25,000	25,000

※ 1)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인상분 적용시점: 2003. 3. 1부터

2) 저소득층 자녀 지원 2003년 기준 적용시점: 2003.3.1.(2002년 책정 아동은 2003.2.28까지 보호)

3) 특수보육 등

- 취학아동 방과후보육, 장애아보육, 야간보육,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위 1) 및 2)의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VI-1」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원한다.

- ※ 24시간 보육 중인 저소득층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12시간을 기준으로 주간보육료와 야간보육료 중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 3세이상 아동의 24시간에 보육료가 312,500원(주간보육료 125,000원 + 야간보육료 187,500원)인 경우 야간보육료 187,500원을 지원한다.(나머지 차액은 보호자로부터 수납)

○ (신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구분

1) 중증장애 아동

장애등급 1, 2급 아동, 3급 정신지체, 발달(자폐)장애아동

2) 경증장애 아동

중증장애아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급 장애아동 및 장애등급 4~6급 아동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1) 지원 대상

- 지원대상은 취학전 만5세 이하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아동(만6세, 만7세)에 대해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한다.(단, 취학유예서를 제출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
 -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2세)의 경우 구체적인 장애관정을 내리기 곤란하므로 장애인복지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한다.(단, 장애진단서 제출)

정부지원 보육단가

중증장애아동	경증장애아동	비고
243천원/월	201천원/월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영아(만0세~2세)는 경증장애아

※ 중복장애아동 : 중증장애아동 지원액 적용

지원절차

1) 장애아무상보육 희망 보호자

- 보육시설에 입소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또는 등록증)을 제출
 - ※ 취학유예아동은 '취학유예확인서' 추가 제출

2) 보육시설장

- 관할 시·군·구에 보육중인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신청(증빙서류 첨부)

3) 시·군·구청장

- 장애아동의 보육 사설 및 등록장애아 여부 등을 확인후 시설장에게 해당 보육료 지원(시·군·구 담당자는 '장애아 무상보육 대상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야 함)

2. 보육교사 관련 내용

○ 종사자 입면

■ 채용방법

-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공립시설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이 보육교사를 채용 후 배치할 수 있다.(선발고사 등)

※ 모든 보육시설에서 종사자 채용 시 부당 계약(서면 또는 구두계약으로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요구)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관할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졸업예정자에 대한 특례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예정자(보육교사 1급)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받아 보육시설 종사자(시설장 제외)로 채용할 수 있다.(단, 2개월 이내에 졸업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종사자 결원시 채용시기

- 종사자 결원시 1월 이내에 신규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 증명서 발급

- 경력증명서 발급
 - 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였던 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종사자 관리대장 등을 근거로 <표IV-4>의 서식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경력증명서 발급시 근무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한다.
- 재직증명서 발급
 - 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부터 재직증명서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종사자 관리대장 등을 근거로 <표IV-5>의 서식에 의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종사자 관리사항은 법적근거 마련시까지 보육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 종사자 자격인정

■ (신설) 보육실습

- 보육실습은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보육실습 기관장 및 학과장으로부터 <표IV-7>서식에 의거 실습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 실습기관 : 어린이 집 또는 정원이 15명 이상인 놀이방, 유치원(종일제인 경우에 한함),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영유아시설에 한함)
 - 실습시간 : 4주이상(200시간 기준)
 - 실습지도교사 : 시설장(1급 보육교사 자격소지자) 또는 1급 보육교사
- '98. 3. 1부터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보육시설,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에서 4주이상의 보육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한 자만 인정한다.

○ 종사자 경력인정

1) 대상자

- 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보육시설 종사자
- 새마을유아원에서 보육시설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 1982. 2. 22 전문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이전 아동복지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보육

- 교사 자격을 가진 자
- 기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8조제1항 별표 3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의해 유자격자로 인정되어 근무중인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제5조에 의거 설치된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2) 인정범위

■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경력을 제한적으로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 동일시설 근무경력의 호봉인정 등

- 1982. 2. 22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이전 아동복지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5조)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며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1982. 2. 22 이후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자격인정 이전기간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한다.
→ 자격인정을 받을 때까지 초급호봉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 양성교육 이수전 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하되, 양성교육 이수 후부터 근무경력 10할을 인정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91. 8. 8)이전에 무자격이었던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동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에 의거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 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5할을 인정하고, 유자격 근무경력 10할을 인정한다.

-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발령한 경우

- 시 군 구청장이 '92. 1. 1 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발령한 경우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시설장 포함)

예) '91년말 현재 공립A시설에서 5호봉으로 받고 있는 종사자가 '92.1.1 전보발령으로 관내 공립B시설로 옮긴 경우 6호봉으로 인정

- '96. 1. 1 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

- '96. 1. 1 이후 동일법인내에서 보육시설간 전보된 경우

- '96년말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보육시설에 근무중인 종사자가 '97. 1. 1 이후 타 지역(전국단위)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계속 근무하는 경우 '96년말 현재 종사자 경력인정 2) 인정범위-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및 제한적으로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예) 1)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 1일 호봉승급자)가 '97. 1월에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5호봉으로 확정 가능하다.

- 2)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 1일 호봉승급자)가 공백기간을 가지다가 '97. 3월에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계속근무가 아니므로 1호봉으로 확정 가능하다.

〈 경력 인정 개선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 1996년 12월말 이전에 민간보육시설에 계속 근무한 종사자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

예) '96년말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4년간 계속 근무했던 종사자가 1997년 1월1일부터 국공립 및 법인시설로 옮긴 경우 5호봉으로 인정

3) 경력인정제도 개선

- 1999년도까지는 종사자 경력인정 2) 인정범위의 기준에 의거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 1. 1부터는 2000. 1. 1 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예) '99년말 현재 A시설에서 10호봉을 받고있는 종사자(1월 1일 호봉승급자)가 '2000. 2월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후 4월에 B시설에 채용된 경우 11호봉으로 확정한다.

〈 경력 인정 개선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 보육시설 종사자로 계속 근무하던 자가 다른 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직종 변경시 시설장 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 계속 근무경력 10할을 호봉으로 인정

예) 2002년말 현재 2급 보육교사로 A시설에서 10년간 계속 근무하다가 2003. 1. 1 B시설로 옮긴 경우 시설장 자격취득이후 보육교사 계속근무 경력 10할 인정(3호봉)

○ 산재보험 가입

1) 가입대상

- 모든 보육시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 공립 보육시설 중 직영시설로 종사자가 공무원인 경우와 놀이방 운영시 종사자가 없는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2) 연간보험료 : 종사자 임금총액의 1,000분의 5

○ (산설) 고용보험 가입

1) 가입대상

-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9조)

2) 연간보험료

- 종사자 임금총액의 1,000분의 9 (사용자 및 종사자 각 50%)

○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모든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없다.
-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이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사항에 대한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인 및 시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방송대 특별전형

- 보육시설('96년 어린이집 · 2001년 놀이방)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특별전형을 허용한다.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퇴직금 중간정산

1) 시행방법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요건 · 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 마련
- 중간정산 시행시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

-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 제한은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 문제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2)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관계

-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근로 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3. 기타

○ 영아전담시설 유아입소 특례

- 예외적으로 형제, 자매인 경우 정원 범위내 입소를 허용함.

○ 장애아전담 시설 특수교사 범위에 행동치료사 포함

○ 장애아전담시설 치료사 자원기준을 현행 3명까지에서 최대 5명까지로 확대

○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 의무대상 사업장 중 사업장 내 공해 또는 위험시설물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과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공동보육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인근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위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근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내용(노동부) 〉

-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또는 용자, 운영비 및 교구비 지원
- '03년도 지원내용
 - 시설설치비: 1억원 한도, 소요비용의 50~80% 지원
 - 기존 보육시설을 영아 · 장애아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80%까지 보조
 - 시설설치비 용자: 5억원 한도, 대출금리 1.0%~2.0%
 -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의 매입 또는 임대비 용자 제도 도입
 - 교구비 등 지원: 3천5백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80% 지원
 - 시설운영비 지원: 사업장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비율이 전체 보육아동의 1/3초과시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구 분	지 원 내 용
국공립/법인 등 시설	40인 이상 시설 ○ 원장: 인건비 100% ○ 보육교사: 인건비 50%(영아담당 교사 100%)
	40인 미만 시설 ○ 원장: 인건비 지원 없음 ○ 보육교사: 인건비 50%(영아담당 교사 100%)
	사회복지, 종교시설 부설설치비 지원시설,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시설 (신설) ※ 원장 인건비는 40인 이상 시설에 지원
	기 타 ○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는 경우 장애아반 운영에 소요되는 보 육교사 인건비 100%지원(종일반 기준)
시간영장형 보육시설	○ 보육교사 인건비: 100% 지원(별도 채용시)
휴일 보육시설	○ 보육교사 근무수당: 5만원/일
방과후 보육시설	○ 보육교사 인건비: 50% 지원(별도 채용시)
민간(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	○ 영아반 담당교사 인건비: 월40만원/개소 ○ 교재교구비: 200~1,000천원/개소당 · 년
영아전담시설	○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100% ○ 취사부 1명: 100% ※ 원장 인건비는 4개반 이상 시설에 지원
장애아통합시설	○ 보육교사 인건비: 100% 지원(3인이상 보육시)
장애아전담시설	○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100% ○ 반편성의 장애유형에 따라 아동 10명당 치료사 1 명 지원(5명 한도) ○ 취사부 1명: 100%
농어촌 보육시설 (국공립, 비영리법인 시설)	○ 추가지원: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월/개소당 150천원

※ 지원율은 국고(서울: 20%, 지방: 50%), 지방비(서울: 70%, 지방: 40%), 자부담(10%)을 포함한다

기획시리즈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자리찾기 (1)

심선경 · 명예회원/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지난 2월 12일 수요일 늦은 7시쯤부터 참석자들이 하나 둘 서둘러 사무실로 들어왔다. 어린이집에서의 하루일과를 끝내고 피곤한 몸을 끌고, 그러나 씩씩한 모습으로, 어떤 보육교사는 딸기를 사들고 멋쩍어 하며 들어오기도 하고, 기차를 타고 먼길을 마다 않고 온 보육교사까지, 이러한 보육교사들의 모습을 보며 나의 옛 모습이 생각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잘 되어야 할텐데 하는 긴장과 떨림이.....

우선 늦은 저녁을 서둘러 먹고 모임을 시작했다.

오늘의 모임은 첫모임인 만큼 참석자들의 소개와 이제부터 시작할 보육교사들의 자리찾기에 대한 의미공유를 위한 시간과 첫 번째 주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다.

이번 모임의 참석자들은 모임의 진행자인 나와 사무국장 1인, 그리고 보육교사 4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연구의 목적이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자리찾기인 만큼 현실에서 보육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 사례를 모아보기 위해 가능한 여러 형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참석하도록 모임성원을 구성하였다. 모임성원 전원은 한국보육교사회 정회원이다.

참석자들은 국공립 시설의 2인, 공동육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 보육교사가 공동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인으로, 가장 힘든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상황을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보육교사들의 경력은 짧게는 3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보육교사들로서 어린이집의 활동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였고, 참석자들 모두는 어린이집 활동에 많은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써 이 모임을 운영하는 데 적합하였다.

참석자들이 일하는 곳의 규모는 국공립시설은 100명 이하였고 공동육아, 공동운영어린이집 모두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좀더 큰 시설 보육교사의 충원이 필요할 듯도 하다.

그리고 좀 더 솔직한 대화를 위해 실명은 사용하지 않고 서로의 별칭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서두는 “이 모임이 무엇을 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였는가?” 하는 질문으로 모임의 의미공유를 하였다.

참석자 모두는 “우리네 아이들”을 통해 내용을 읽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모임의 상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고, 모임의 정리를 위해 녹음을 시작하자 약간의 긴장된 모습이었다.

백희 이 모임에 대해서, 보육교사들은 사실 전체를 모르고 아이들과 보육교사의 관계와 같이 부분적인 것만을 보게 되고, 사실에서 시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런 현재의 현실을 바탕으로 이 모임에서 건설적인 대안도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생쥐 이 모임에서 대안까지 기대하는 것은 욕심인 것 같다. 현재는 문제의식을 가지는 차원으로 이 모임을 통해 현실진단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천둥번개 처음 소식을 듣고 새로운 시도하려는데 호기심을 느꼈다. 모든 문제는 보육교사들 자신의 정체성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장에서 나를 찾을 수 있기를... 보육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까치소리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우주 나는 사실 보육교사회에 원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참석하겠다고 했다. 사실 이모임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몰랐다. 그런데 이곳까지 오는 동안 문득 그 동안 함께 일하다 그만두었던 보육교사들이 생각났다. 왜일까? 그들이 왜 어린이집을 그만두었을까? 혹시 여기서 그 행답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너무 소수이니 더 많은 보육교사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설문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진행자 아마도 이 모임의 일기에 가서 이 모임의 성과물로서 설문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만들면 더 많은 의견들을 모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까지 이야기 한 것을 종합해보면, 그 동안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에게 부과되는 부분적인 일들만을 열심히 했다면, 이제는 어린이집 운영 전체 속에서 보육교사의 역할을 볼 수 있도록 현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었다. 덧붙이자면 그 동안 아이들과 교육을 어린이집의 중심에 두고 보았다면 이 자리에서는 보육교사 자신을 어린이집의 가운데에 두고 모든 일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석자들은 보육교사 자신이 사고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에 의외로 낯설어 했다. 자신들이 가운데에 있다는 것에 말이다.

(교사 자신을 어린이집의 중심에 두고 어린이집의 모든 활동과 환경, 그리고 관계를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 호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본 연구가 교사들의 셀프 임파워먼트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셀프 임파워먼트를 설명하는 요인들은 대부분이 주관적인 인지요소나 정서적 경험들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임파워먼트의 개념은 자신에 대한 ‘자기 효능감’, ‘자존감’, ‘자기조절과 통제감’ 그리고 ‘적극적인 도전의식’ 등으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규정하는가 하

는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최명민, 2002)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강점들인데 우리는 교사 개개인이 가진 강점들을 어떻게 강화시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유능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자기 활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사들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어린이집의 환경과 어린이집에서의 역할-들이 어떠한가 보고자 하는 것이며, 가장 먼저 이 요인을 보는데 있어 교사를 중심에 놓고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임의 성격에 대해 공유한 후 다음 토론으로는 보육교사가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나열해 보기로 했다. 그러나 얘기가 시작되자, 이제까지 어린이집에서의 보육교사의 부당한 취급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느라 모두들 상기된 얼굴로 자꾸만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

천둥번개 차장은영.

백희 청소를 해야 할 수 없지요. 보육교사가 청소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이들은 아이들에게 생활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모델링이 된다고 얘기한다. 그러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육방향이 좋다. 보육교사가 모델링이 되는... 그러나 보육교사의 객관적 조건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교육시스템에서 좋다는 것은 그대로 적용하여 보육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억지다.

천둥번개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생활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생쥐 그런데 저녁에 보육교사들이 청소를 하게 되면, 한 보육실을 청소하고 나서 다른 보육실을 청소하기 위해 아이들을 한쪽으로 몰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청소가 된 공간에 갈 수 없게 되어 한곳에서만 놀도록 하는 결과가 빚어지기도 한다.

백희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보육교사들의 일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러나 원장이 아무리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교육활동을 벌이려 해도 이는 모두가 보육교사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객관적 조건이 좋다면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정말로 아이들과의 관계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실 지금의 현실에서 하루종일 아이들에게 시고만 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보육교사들은 생각한다.

또, 어린이집에는 여벌아동이라는 것이 있다. 갑자기 퇴원아동이 생기게 될 것을 대비한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는 보육교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어떤 때는 보육교사의 고단함이 그 아동 때문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될 때가 있다. 이는 순전히 운영상의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이전에 근무하던 20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서 보면, 처음 신입보육교사들은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알고 지내게 된다. 그래서 뭐가 문제이고 뭐가 자신의 역할인지를 잘 모르는 채 그냥 원장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다.

진행자 원장과 보육교사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뒷모임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자.

천동번개 나는 보육교사들이 하는 일 중에 교육활동을 자료화하고, 형식적인 평가서를 쓰는 것이 싫다. 난 분명히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고 활동을 즐겼는데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내가 뭘 했지 하고 파종이 나기도 한다.

진행자) 천동번개의 이야기를 들으면, 보여주기 식의 평가, 활동을 자료화하는 작업이 보육교사에게 또 하나의 일로 다가올 수 있고, 아이들과의 활동이 평가의 부분까지 연결됨으로 해서 보육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 부분 역시 다음 모임에서 더 토론할 필요가 있겠다.

까치소리) 우리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의 경력에 따라 역할 분담이 명확히 되어 있다. 일지관리, 환경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급식관리, 행사관리, 재무 관리, 서류정리까지 업무 분담을 하고 있다.

백화) 다른 보육교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까치소리) 원장님은 이런 업무를 해보는 것이 이후에 원장이 되기 전 사전훈련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운 것 같다. 그래서 별 불만은 없는 것 같다.

백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육교사가 이런 역할까지 다 하다보면 보육교사 고유의 역할에 부담이 되고, 이는 바로 썩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문제를 가져오게 되기도 한다. 나도 그런 일을 해 보았는데, 어떤 경우 보육교사가 부모에게 직접 보육로 납부와 견학비용을 채우는 업무까지를 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이것은 보육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모임은 첫모임으로 모임성원들끼리의 관계형성, 이 모임에 대한 서로의 기대와 우리가 해야 할 것 등에 대한 공유 등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진행해야 했다. 때문에 내가 준비한 "보육교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때문에 다음 번 모임에서 이 주제를 다시 다루어 보기로 하였다.

오늘의 난상토론 속에서 다양한 부분의 생각거리들이 나타났다. 보육교사들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보육교사의 헌신은 어디까지인가 기타 등등..

보육교사들의 정체성의 문제는 이야기를 많이 나눈 뒤 어린이집에서 나의 자리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함께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

두 달에 한번씩이라는 긴 간격과 세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 우리 모임에 제약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의 고민으로 생활 속으로 가져가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통해 다음 모임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들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기·고

적극적인 보육, 열린 보육으로의 전진 - 포괄적 보육서비스

황미혜 · 본회 프로젝트담당간사

편집자 주 | 본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이하 '프로젝트')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1월부터 시작하여 총 10개월간의 사업기간을 두고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7개 지역의 보육시설 종사자와 보육담당 공무원, 지역 복지기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실게 되었으며, 글쓴이가 지난 2002년 7월 연세대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포괄적 보육서비스 수행 결정요인-서울특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의 일부분을 수정,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1. 보육에 대한 문제제기

산업화·도시화, 핵가족화, 소자녀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및 가족해체의 증가와 다양한 가족구조의 등장 등으로 설명되는 현대사회의 특징은, 이제 현 사회에서 아동양육이 더 이상 개별 가정에게 맡겨질 수 없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보육사업은 처음에는 빈민구제나 여성노동력 확보의 차원에서 시작하여 차츰 모든 계층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족의 교육기능을 지원하고, 아동의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방향(양옥송 외, 1999)으로 변해왔다. 우리나라 역시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을 시초로, 한국전쟁 전후 양산된 극빈층 자녀의 수용·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보호중심의 보육에서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유아교육으로서 보육을 개념화하고 이후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통해 보호와 교육의 통합으로 보육의 개념을 제시하게 되는 변화를 보여왔다. 그러나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의 대응은 단기적 시설 확충을 통한 양적 팽창에 주요한 결과 그에 따른 질적 향상이 동반되지 못하였다.

최근 보육은 보호와 교육의 단순결합을 뛰어넘는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동이 보육시설에

- 1) 이 시기의 보육서비스는 빈곤가정의 자녀를 단순히 보호하고 양육하는 탁아의 목적 외에 고아, 미아, 기아 등의 요보호 아동을 장기간 보호하는 수용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보육은 초기부터 탁아를 위한 보육사업과 고아를 위한 아동수용서비스간의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보육을 비전문적이고 시혜적인 사업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보육시설이 정체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첫 번째 원인이 되었다(삼성복지재단, 2001).

있는 동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정과 또 그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도와 보호를 못 받게 된다면 총체적 의미의 아동의 건전한 육성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김현숙, 1996). 이미 많은 국내외 학자들이 보육서비스를 아동복지서비스로서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원·유지·보존시키는 서비스로서,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센터로서의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장하였다(Karmerman & Kahn, 1976, 1978; Mitchell, 1989; Roditti, 1995; Hildebrand & Hearn, 1995, 1997; 이옥, 1991; 위영희, 1991; 김현숙, 1992, 1996; 표갑수, 2000 등).

보육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에 대한 요구로 인해 등장한 것이 이른바 '포괄적 보육서비스' (comprehensive child care services)이다. 아동의 발달육구를 충족시키는 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가족과 지역사회와 같은 제반 환경들에까지 접근해야 한다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개념의 보육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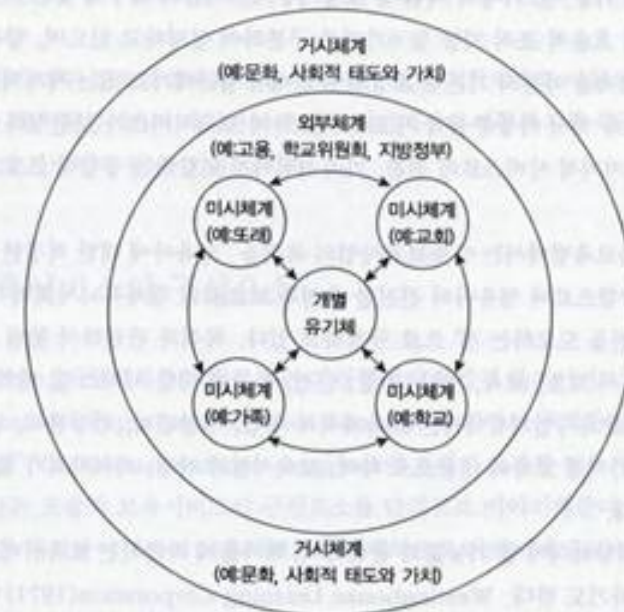
2. 생태체계관점에서의 보육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개념은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생태체계이론은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적 환경을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zosystem), 외부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로 구분한다(Bronfenbrenner, 1979). 미시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이 독특한 물리적·물질적인 특성을 가진 환경내에서 경험하는 활동, 역할 및 대인관계의 유형을 뜻한다. 여기서 환경이란 가정, 보육시설, 놀이터 등과 같이 사람들이 쉽게 얼굴을 마주 대하는(face-to-face)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중간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들간의 상호관계(interaction)로 이루어지는데, 아동의 경우 가정, 학교와 이웃, 동료집단 사이의 관계가 해당된다. 외부체계는 개인이 적극적인 참여자로 관여하지는 않으나 개인이 속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경을 의미한다.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직장, 손위 형제가 다니는 학교 학급, 부모의 친구 조직망, 지방 교육청의 활동 등이 포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시체계는 기본적인 신념 체계가 이념과 함께 하위체계들(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의 형태와 내용에서 나타나는 일관성(consistencies)으로서, 특정문화나 사회 경제적, 인종적, 종교적 체계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보육은, 진공상태에서 홀로 존재하는 아동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발달하는 존재로서 아동을 바라보고 접근할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른 실천방안은 특히 서비스간의 통합(integration), 연계(linkup), 공동협력과 제휴를 통한 다차원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되므로, 보육시설(종사자)과 아동, 가정, 지역사회, 다른 보육 및 복지관련 기관들과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이혜숙, 2001).

<그림 1> 생태체계의 단계



출처 Garbarino J., 1982, Children & Families in the Social Environment, NY : Aldine Publishing Company. Peter J. Pecora et al., 1992, The Child Welfare Challenge :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NY : Aldine de Gruyter에서 재인용.

3.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개념

Khetani(1984)는, 보육의 주목적은 아동의 보호에 있으나 아동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게 되는 보육시설에서는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아동 발달에 필요한 육구는 상호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서비스들도 상호연관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지니며, 보육시설은 이러한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예방적, 촉진적, 개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이 아동보호에 대한 서비스만 제공하고 관련서비스의 제공이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과의 조정 협력이 없다면, 비연속성(discontinuity) 및 비접근성(inaccessibility)과 같은 문제를 지니는 전달체제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단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마찬가지로 Friedman과 Friedman(1982)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족이 문제를 가진 것은 아니나, 서비스 육구를 가진 가족에게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보육서비스를 매개로 지지적이고 보다 덜 위협적인 치료적 접근 및 예방적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박현선, 1993에서 재인용).

국내학자로는 표갑수(2000)가 보육시설의 기능을 사회사업적 측면에서 ① 예방적 기능, ② 보호기능, ③ 교육적 기능, ④ 가정의 지원 및 보상기능, ⑤ 아동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기능, ⑥ 지역사회와의 효율적 조직 기능 등 6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양옥승과 그 동료들(1999)은 영유아보육을 아동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해가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보육 역시 아동중심적 사고에 기초하여 보육서비스가 보편성과 사회적 공동육아로서의 재개념화, 지지적 서비스로의 전환, 가족지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프로그램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아동보육사업의 목적을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목적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에서 보육의 기본원칙으로서 보호,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보육사업지침에서는 보육계획의 수립, 영양관리, 건강관리, 안전관리, 지역사회 복지 도모 등 5가지를 보육의 내용으로 하여, 보육시설과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보육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보육서비스가 지향하여야 할 기능들과 관련하여, 학자들에 따라서는 보육서비스가 지니는 특성으로 보육을 구분하기도 한다. Westinghouse Learning Corporation(1971)에서 행한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보호적 시설(Custodial center), 교육적 시설(Educational center), 발달적 혹은 포괄적 시설(Developmental or Comprehensive center)로 나뉘어진 다(Westinghouse Learning Cooperation and Westut Research Inc., 1971).

Coelen, Glantz와 Calore(1979)은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기본적 서비스(basic service)와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로 크게 양분하였다. 기본적 서비스는 보육서비스장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아동에 대한 종일의 보호와 지도감독을 포함한다. 그 외 보육서비스장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충적 서비스로서, 건강진단, 아동의 발달검사, 가족상담 및 부모에게 지원되는 여타의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자들의 분류는 마치 서로 별개의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본 연구자는 이에 더하여 소극적 서비스(passive service)와 적극적 서비스(active service)라는 분류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소극적 서비스는 기존의 보호와 교육으로 인식되던 보육서비스를 일컫으며, 적극적 서비스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삶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개별화되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취하여 아동과 그 환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예컨대 아동에 대한 언어지도는 일상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소극적 서비스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개별아동의 발달수준과 이상의 유무에 따라 장애아동이나 언어발달이 지체된 아동의 경우에는 그 아동의 수준과 형편에 적합한 개별화된 언어지도프로그램

2) 음식, 보호장소, 성인의 지도감독만이 제공되는 기관

3) 보호적 서비스와 더불어 교육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

4) 보호·교육 서비스와 건강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아동의 감정적 창조적 욕구에 대한 관심, 부모 교육, 부모참여가 제공되는 기관

을 기획하여 수행하거나, 적절한 전문기관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면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포괄적 보육서비스는 적극적 보육서비스로 지칭될 수 있다.

즉 포괄적 보육서비스란 보호와 교육의 단순 결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의 복리를 위해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제반 환경에까지 개입하여 온전한 의미에서의 아동복지를 추구하는 폭넓고 적극적인 보육서비스의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구성요소

포괄적 보육서비스는 '지역사회를 토대로 하는 가정중심의 포괄적 복지서비스'(community-based family-centered comprehensive social services)에 의해서 구체화될 수 있으며, '개별화된 보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care program)에 의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삼성복지재단, 2001)는 언급은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단적으로 이야기해준다. 아동, 가정, 지역사회로 구성요소를 정리하여 포괄적 보육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는지를 살펴보자.

1) 아동을 위한 포괄적 보육서비스

아동을 위한 포괄적 보육서비스는 아동이 지니고 있는 욕구와 위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이다.

Piaget는 유아들의 인지발달을 연속적 단계로 묘사하여 초기 단계가 나중 단계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김미경, 1998). 이러한 발달적 관점에 따라 초기 아동기의 발달단계를

5) 학자에 따라 '발달적 보육'(developmental care) 또는 '아동보육의 구성요소로서의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동의 발달적 측면을 중시하고 적절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보육서비스와 동일시하여도 무관할 듯 하다. 일례로, 국내학자인 백선희(1999)는 자신의 박사학위논문 등을 통해 '아동보육의 구성요소로서의 사회서비스란 모든 아동이 최적의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제 활동과 보육아동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의 총칭'이라고 정의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한 적극적 보육의 개념으로서의 포괄적 보육서비스와 일치하고 있다.

6) 지역사회를 토대로 하는 가정중심의 포괄적 복지서비스는 아동 개인의 보육욕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아동이 속한 가족 전체의 기능향상과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아동보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시적인 보육서비스를 의미한다(삼성복지재단, 2001).

7) 개별화된 보육프로그램은 보육의 일차적인 목적인 아동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해 아동의 개별적인 발달특성과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계획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시적인 보육서비스를 의미한다(삼성복지재단, 2001).

사정해 보면 이 시기는 아동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타인에 대한 기본신뢰를 쌓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성취감을 획득하여 사회적 능력을 갖추는 결정적인 단계에 해당한다(Weikart, 1992). 따라서 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와 같은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개인의 발달적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의 발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내용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고 건강, 영양, 교육, 사회적 서비스, 부모참여 등을 포괄하는 기본내용을 갖추어야(Dore, 1993) 하며, 이러한 점은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포괄적이고 풍부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준다(Blank, 1993).

즉 포괄적 아동보육서비스는 균형있는 발달을 위하여 아동의 욕구와 위기적 상황에 대처하려는 것이며, 아동의 욕구발견, 퇴행이나 저항 등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 부모와의 협력관계 구성, 학대나 이혼 같은 위기상황의 아동에게 전문적 서비스와 연계하여 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와 더불어 장애, 성, 문화, 인종, 아동의 지위와 능력에 대한 가족의 기대나 문화적 기대, 외모 등에 대한 편견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아동의 욕구와 권리를 옹호(ANTA, 1996; 백선희, 1999에서 재인용)하여야 한다.

2) 가정을 위한 포괄적 보육서비스

생태학적 이론에서는 개인을 그가 처해있는 환경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Hartman(1979)은 인간의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였다(김동배 · 권중돈, 1998에서 재인용). Bronfenbrenner(1979)는 부모들이 가족내에서 자녀양육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다른 환경들에서 발생하는 역할기대, 스트레스, 그리고 지원 등에 달려 있다고 말함으로써 가족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Pecora와 그의 동료들(1992)은 가족, 특히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선행변수로 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이른바 '상황의 A-B-C 모델' (A-B-C model of the situation)로 도식화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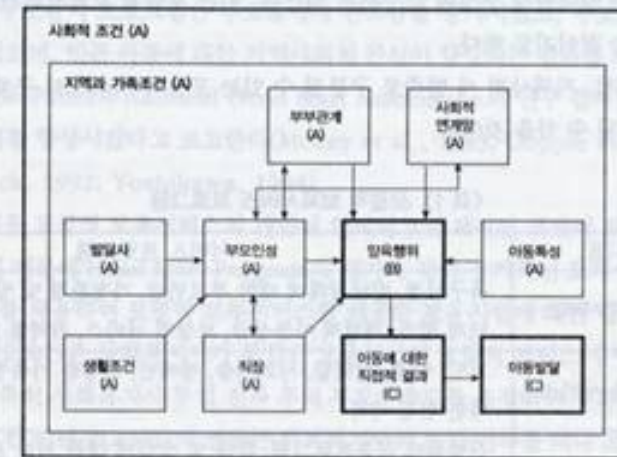
가족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가족지지서비스(family support services)는 모든 가족에게 제공될 수 있는 핵심적 서비스이며, 가족보존서비스(family preservation services)는 심각한 스트레스나 자녀양육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지닌 가족들을 지원하고, 가족 안에서 그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는 가족 중심의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이다. 좁게는 이미 위기에 처하였거나 위기에 직면한 가족들을 위해 고안된 서비스를 의미하기도 한다(Roditti, 1995).

포괄적 서비스 프로그램에서의 부모지원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Kagan & Weissbourd, 1994; Weissbourd, 1994; 삼성복지재단, 2001에서 재인용). 그동안 개발된 부모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부모 자신, 지역사회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는, 비용 효율성과 사회의 인재양성 측면에서도 국가적인 이익을 산출(Patrikakou, Weissberg, & Rubenstein, 1999; 삼성복지재단, 2001에서 재인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유아교육기관에서 양육을 받은 가정에서 어머니 혹은 어머니 대리인에 의해 양육·보호를 받은 간에 건강하고 행복하며 능동적으로 학습할 줄 아는 아동으로서 성장하려면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Hoing, 1975; 허정명, 2000에서 재인용). 이는 가정에서의 아동의 경험과 외부환경에서의 경험사이의 연속성이 최대화되어야 하기 때문(Hatch, 1982)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포괄적 보육서비스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가정이라는 맥락을 고려하여 가족을 지원하는 많은 활동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약화된 가족기능을 보완하고 가정의 계층적 차이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2〉 상황의 A-B-C 모델(신체적 아동학대사태를 사정하기 위한 생태적 모델)



A: 선행조건, B: 양육자 행위, C: 아동에게 미치는 결과

출처: Peter J. Pecora et al., 1992, The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NY: Aldine de Gruyter에서 인용.

3) 지역사회를 위한 포괄적 보육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가 아동보육의 책임을 공유하여, 보육시설에서 아동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보육시설과 보육아동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한다는 양 측면의 서비스가 통합된 영역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아동과 가족은 보다 양질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보육시설은 보다 풍부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백선희, 1999).

지역사회의 보육욕구 충족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연결시키며 조직과

8) Romanyshyn(1971)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개인이 가족의 일부임을 무시한 채 행해지고 있으며 가족보다는 개인과 사회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김양희, 1993).

연대를 통해서 보다 향상되고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예컨대 지역 상점의 식품이나 생활용품 후원으로부터 전문기관(예: 병원, 복지기관)의 프로그램 보조 및 기술 보조, 지역조직을 활용한 교사교육 등 지역내 자원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보육대상 아동이나 가정, 혹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Kinch & Schweinhart, 1999).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발전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서비스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어린이집의 관계는 상호협력체계로서 보육시설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물적 자원을 보육활동에 이용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위한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통해 보육시설은 지역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게 되는데, 이는 포괄적 보육서비스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아동, 가정, 지역사회 세 범주로 구분될 수 있는 포괄적 서비스의 구체적 프로그램은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포괄적 보육서비스 프로그램

대지표	중지표	서비스 프로그램
아동 서비스	개별화된 서비스	육구사정, 발달상태에 대한 부모면담, 가정환경 및 양육환경 평가, 발달 단계 평가, 개별적 아동상담, 보살적 서비스, 지역별 프로그램
	편견극복 서비스	노인, 인종, 성역할, 사회계층, 장애인, 다양한 가족형태(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 극복
	위기·특수육구	신입원아 적응프로그램,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발달장애 아 전문 기관 의뢰, 문제행동 지도 및 의뢰
가족 서비스	가족참여서비스	부모-교사 연계, 보육계획 공유, 참관수업, 보육활동 참여, 부모조직, 의사결정 참여, 보육활동 평가, 가족이 자원활용, 물질적 원조, 가족의 지역사회 봉사
	가족지지서비스	육아상담, 부모교육, 아동의 발달단계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제공, 아동양육기술 훈련, 문제행동 지도, 가족상담, 부모상담, 가족교육, 구직상담, 지역사회 정보공유
	가족보존서비스	이혼·별거·폭력 등의 위기가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의뢰, 약물중독 부모의 치료집단 구성, 대리가족서비스, 가족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지역 사회 서비스	지역사회참여	지역사회 홍보, 지역사회 행사 참여, 주민조직 참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 유관단체와의 연계
	지역사회	지역사회 기관 활용, 지역사회 전문인력 활용, 지역사회 조직활용, 개인 및 단체 후원 연계, 지역사회 시설 및 자원자원 활용, 지역사회 공동모금
	지역사회 봉사	지역사회 주민교육, 육아상담, 시설개방, 자료제공, 사회복지기관 봉사, 봉사활동, 지역주민 대상의 행사개최

• 백선화(1999)와 이해숙(2001)이 정리한 보육서비스의 구성요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하였음.

4.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효과성

과연 포괄적 보육서비스는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일까.

미국의 Head Start Program은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대표적 예로 자주 거론된다. 빈곤타파를 위해 1964년 미국 정부에 의해 시도된 이후 최근까지도 Head Start Program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들 연구결과를 통해 포괄적 보육서비스가 갖는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Head Start에 참여한 빈곤계층의 아동들이 참여하지 않은 동일 계층의 아동들에 비해 사회적 자신감이 증가하고 건강이 증진되었으며 진학률이 높았으며 위법행위가 줄고 10대 임신율이 낮았고 공공보조를 적게 받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모참여 프로그램은 부모들에게 만족감을 증가시켰고, 부모들의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빈곤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그리고 Silver Ribon Panel과 National Head Start Association의 연구 결과도 이 프로그램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향상시켰다고 보고한다(Mckey et al., 1985; Copple et al., 1987; Zigler, Taussig, & Black, 1992; Yoshikawa, 1994).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개념이 인식되고 구체적인 포괄적 프로그램을 수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Head Start Program의 평가와 같이 장기적인 효과성을 입증할 수는 없으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는 최근에 진행된 바 있다. 이민경(2001)은 사회복지사가 투입된 보육시설의 포괄적 서비스 수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사 투입 전과 후의 부모만족도를 측정하여 사회복지사 활동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 이민경(2001)의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투입 여하를 떠나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여겨진다.

그의 조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사회복지사 활동 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부모의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사회복지사의 활동 후 어린이집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는 모든 영역에서 활동 전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그중 보건서비스, 정보 및 의뢰서비스, 지역사회교류 서비스 부분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의 만족도에서는 보건서비스, 정서적 지원, 영양서비스, 정보 및 의뢰서비스, 지역사회 교류서비스 등의 서비스에서 모두 저소득층이 중상류층보다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중이지만, 앞서 수행된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포괄적 보육서비스가 갖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듯 하다.

5. 덧붙여...

우리나라는 포괄적 보육서비스라는 단어조차 아직 보육 관련자들에게조차 낯선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포괄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

나 실태조사, 모델 제시에 그치고 있으며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전담인력의 부재,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예산의 부족, 부모나 지역사회의 인식 부족 따위의 현실은 포괄적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때로는 권위적이고 틀에 매인 행정체계가 '열린' 보육을 추구하는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방해하기도 한다.

포괄적 보육서비스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아동을 직접 담당하는 보육교사와 시설 내 전체 보육아동에 대한 관리와 시설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는 시설장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또 보육시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하는 복덕방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행정당국의 지원·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유아의 경험은 일생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육시설 종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관련 일꾼, 담당공무원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보육의 정책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기에 좋은 양육환경을 만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배·권중돈, 1998,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김미경, 1998, 「해트스타트」, 교육아카데미
 김승권 외, 2000a,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_____, 2000b, 「영유아 보육서비스 실태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연구」, 여성특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양희, 1993, 「가족복지정책」, 가족학·한국가족관계학회 편, 도서출판 하우
 김진아, 1999, 「포괄적 보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보육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향숙, 2001, 「포괄적 보육프로그램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숙, 1992, 「영유아 보육시설 복지서비스 기능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복지연구논문집·제15집
 _____, 1996, 「보육시설의 사회적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논문집·제19집
 김현주, 1999, 「보육시설에서 사회사업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현선, 1993, 「통합적 탁아서비스의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선희, 1998, 「아동보육서비스 프로그램의 기본모형」, 한국영유아보육학·제13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_____, 1999, 「아동보육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2001, 「2001년도 보육사업안내」
 삼성복지재단, 2001, 「보육시설에서의 포괄적 보육서비스」, 삼성복지재단
 양옥승, 1991, 「영·유아를 위한 탁아프로그램의 방향」, 우리 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한울
 _____ 외, 1999, 「영유아보육개론」, 학지사
 유희정, 1997, 「빈민지역 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개발」, 한국영유아보육학·제9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원영남, 2001, 「사회복지사로서 보육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위영희, 1991,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로서의 탁아」, 탁아연구·양서원
 이민경, 2001, 「어린이집에서의 사회복지사 활동 정착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제26집
 이옥, 1991, 「빈곤층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탁아소 프로그램의 확대방안」, 탁아연구·양서원
 이혜숙, 2001,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영숙, 1999, 「보육시설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실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인협·오정수, 1993,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표갑수, 2000,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육교사회, 2001, 「보육교사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개선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보육교사회
 함장아, 2000, 「어린이집의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욕구조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경명, 2000, 「어린이집의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운영실태 조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lison Clarke-Stewart, 1993, Daycare(Revised Edition),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Angela, Miller, 1990, The Day Care Dilemma: Critical Concerns for American Families, London and New York : Plenum.
 Barbara Fink, 1995, Providing Quality Child Day Care in a Comprehensive Program for Disadvantaged Young Mothers and Their Children, Child Welfare, Vo1, LXXIV, #6, November/December,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E. Melhuish & P. Moss, 1991, Day Care for Young Children: International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E. Zigler & E. Gordon, 1991, Day Care : Scientific and social Policy Issues, Boston : Auburn House.
 _____, Matia Finn-Stevenson, and Katherine W. Marsland, 1995, Child Day Care in the Schools : The School of the 21st Century, Child Welfare, Vo1, LXXIV, #6, November/December,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Hatch, 1982, "Families, Children, and Child Care", Day Care : Scientific and Social Policy Issues(eds. by E. Zigler & E. Gordon), Boston and Massachusetts : Auburn House Publishing Company.
 Helen Blank, 1993, "Improving Child Care Quality and Supply : The Impact of the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Young Children, September.
 Martha G. Roditti, 1995, Child Day Care : A Key Building Block of Family Support and Family Preservation Programs, Child Welfare, Vo1, LXXIV, #6, November/December,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Murli Khetani, 1984, "Measuring Comprehensiveness of Service Provide at Child Day Care Centers", in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Vol.7(3), spring.
 Mckey, R. H. etc., 1985, The Impact of Head Start on Children, Families and Communities: Final Report of the Head Start Evaluation, Synthesis and Utilization Project,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DHHS Publication No.(ODHS) 85-31195).
 Peter J. Pecora, James K. Whitaker, Anthony N. Maluccio, Richard P. Barth & Robert D. Plotnick, 1992, The Child Welfare Challenge :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New York : Andine ed Gruyter
 Sheila B. Kamerman and Alfred J. Kahn, 1995, Innovations in Toddler Day Care and Family Support Services : An International Overview, Child Welfare, Vo1, LXXIV, #6, November/December,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S. W. Downs, E. Moore, E. J. McFadden & L. B. Costin, 2000,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Policies and Practice(6th Edition), Boston · London · Toronto · Sydney · Tokyo · Singapore : Allyn & Bacon
 Urie Bronfenbrenner,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이영 역, 1992, 인간발달생태학·교육과학사
 Vonnie C. McLoyd, 1995, Poverty, Parenting, and Policy : Meeting the Support Needs of Poor Parents, Children of poverty : research, health, and policy issues, eds. by H. E. Fitzgerald, B. M. Lester, and B. Zuckerman, New York & London : Garland publishing, Inc.

어린이 생태교육의 이해

- 살아있는 생명인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생명공간에서
다양한 생명체들과 교감해가며 자라나게 하자!

아래의 글은 2001년 한국보육교사회 부산지부에서 [녹색도시 부산2]에서 후원 받아 실시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태·환경 실천 교육사업 결과 자료집]에 실린 내용입니다.

나들이 활동

1. 나들이의 의미

나들이는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자연을 찾아주고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관계들을 이해하게 한다.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자연을 찾아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 우선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자신의 활동욕구를 발산한다.

아프지 않는 이상 가만히 있는 아이는 없다. 탁 트인 길을 보면 뛰고 높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고 물 웅덩이를 보면 침범거리게 아이들이다. 나들이 가서 무작정 열심히 뛰고 나무, 바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흔히 있는 풍경들이다. 아이들의 이러한 욕구 발산은 신체단련과 아울러 정서순화가 되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한다.

☺ 자연은 아이들에게 훌륭한 놀이감을 제공한다.

정형화되어 노는 방법이 획일화되기 쉬운 플라스틱 장난감에 비해 나무막대기, 돌, 솔방울, 나뭇잎, 도토리 등의 풍부한 자연 놀이감은 아이들을 창의적인 놀이로 이끈다. 바위 위에 앉아 나무막대기를 아래로 드리우고 나뭇잎을 고기라며 건져 올리는 아이, 동백꽃잎의 노란 꽃술을 새우라며 낙엽과 섞어 새우볶음밥을 만드는 아이, 돌로 기차를 만드는 아이 등 자연 속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하고 놀랍다.

☺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가진다.

개미, 지렁이를 무참하게 밟아 죽이던 아이들이 개미집을 만들어주고, 지렁이에게 낙엽이불을 덮어준다. 너무 예뻐서 꺾고 싶지만 다음에 다시 와서 보자며 꽃에게 "안녕"하며 인사를 한다. 살아있는 것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에서 인간을 포함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의 밑바탕이 되게 한다.

☺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 놀면서 계절감각을 자연스럽게 익힌다.

나들이 길에 눈독 들였던 과란 사과가 점점 빨갭게 익어 가는 모습, 앙상한 가지만 있고 아무 것도 없던 툇리 나무에 애기 나뭇잎이 돌아 바람에 팔랑거리는 모습 등을 보면서, 아이들은 시간의 긴 흐름과 흐름 속의 변화들 그리고 계절의 순환을 알게 된다. 봄에는 민들레 찾기, 여름엔 물놀이, 가을엔 도토리 줍기 등의 놀이로 계절이 기억되기도 한다.

☺ 아이들은 매일의 나들이에서 자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골목길에서 만난 열집아주머니, 동네할머니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같은 동네에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해 알게 되고 시장, 문방구, 방앗간, 우체국 등을 직접 이용하며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 사회 속에서 역할 등을 배운다.



2. 나들이 모습

○ 매일의 나들이

• 활동의 예 - 아이들세상 어린이집

날 짜	장 소	놀이 내용
2일(목)	가정대 숲	전래놀이 소개하기 & 자 놀이, 오징어 달구지
3일(금)	자연학습장	감자를 심기 위한 밭 갈기
4일(토)	보육센터 도서관	그림책 보기 문창에 바람피러 갔으나 비가 내려 돌아옴
6일(월)	장전초등학교	입학식 참여 길앞잡이들을 기다리는 동안 놀이기구 타고 놀기 형, 누나들에게 꽃을 전달하고 기념촬영하기
7일(화)	테마나들이 꽃말리는반.마당 매굴, 제멋대로반 - 문창회관	<꽃 말리는 반> 마당에 있는 나무관찰하기 <매굴, 제멋대로반> 돌 가져오기, 크기별 분류, 돌 굴리기, 탑 쌓기 비석치기, 돌 두드리며 노래 부르기
8일(수)		꽃 말리는반 - 장전시장에 가서 찰가루 만들기 요리활동(썩설기)에 필요한 재료와 장비 문창에 가서 동생들과 상봉 오징어 달구지를 모두가 참여해 함 하늘땅 놀이를 하려고 그림을 그렸지만 시간이 없어 조금밖에 못함
9일(목)		피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제멋, 매굴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우유팩 을 휴지로 바꾸어 돌아옴 두 침으로 나누어 해보니 영 승부가 나지 않아 아이대 선생님됨으로 나 우어 하니까 조금 나왔음 정훈, 주환, 해림, 예은이는 8세가 빠지면서 수준이 맞는지 지칠줄 모르 는 듯 돌아올 때까지 피구를 함
10일(금)		도시락을 싸서 여유있게 법대뒷산을 넘어 문예패 연습장까지 올라감 아이들은 넓은 공터보다 바위타기를 더 좋아했음

• 활동의 예 - 주감 어린이집 쓰레기 줍기, 인근산 가꾸기

3. 테마나들이 - 아이들세상 어린이집

일주일에 한번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가는 나들이를 말하며, 주제에 따른 다양한 활동으로 개념확장과 탐
구심을 높일 수 있다.

• 활동의 예

주제 | 부산대 안 나무 이름 걸어 주기

○ 마당에 있는 나무이름 알기

마당에 있는 나무부터 알기 위해 나들이를 마당으로 나갔다. 쉽게 알 수 있는 소나무, 사과나무, 종려나무부터 관찰해 보았다. 잎이 생긴 모양, 수피 등을 관찰하고 나무에 이름을 붙여주었다. 사
과나무는 정확한 이름이 농금임을 알게 되었다.

이름을 모르는 나무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애칭을 지어주었는데 세 그루가 있는 향나무에
게는 세쌍둥이 나무, 연두색 점이 박힌 나뭇잎이 있는 나무는 점나무라고 했다.
향나무는 측백나무과에 비슷한 게 너무 많아 열매를 찾아 비교해 보니 향나무임을 확실히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나머지 나무들은 꽃도 열매도 없어 책을 뒤져 찾기란 너무 어려웠다.

○ 부산대 안 매화나무 이름 걸어주기

매화가 피기 시작해 매화나무에 이름을 달아주었다. 문창회관 아래 매화나무 옆에 등글게 앉아 매
화꽃 모양을 살펴보고 매실이 열리는 과정을 엄마알과 아빠씨가 만나듯이 벌이 수술, 암술의 꽃가
루를 만나게 해 매실이 열린다고 설명해주고 암술아래에 있는 애기매실(씨방)을 보여주니 아주 신
기해했다.

그 뒤 산들이는 동백꽃에도 매실처럼 애기 동백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도빈이는 벌이 꽃가루를 문
혀 이 꽃에서 저 꽃으로 가는 걸 봤다는 등 꽃의 수정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손수 매화나무를 적어 코팅한 후 부산대 본관, 운동장 주변에 있는 매화나무에 이름을 걸어주면서
셈이가 "예쁜 매화나무에만 걸어주지 말고 다른 나무에도 이름을 걸어주자"고 하니 주환이는 동
백나무에 이름을 걸어주자고 하고 점나무라고 애칭을 지어주었던 나무들이 부대 안에도 많자 해
림이는 점나무에도 이름을 걸어주자고 했다.

○ 부산대 안 있는 나무 이름 걸어주기

나들이 가기 전 나무이름을 하나씩 미리 적어서 나갔다.

진달래, 동백나무, 호두나무, 도토리나무, 은행나무 등 아이들은 역시 부대 안의 친근한 나무이름
들을 떠올렸다.

진달래가 피어있어 진달래 이름을 산들이가 달아주려는 순간 셈이가 암술, 수술이 길게 나와 있어
진달래가 아닌 것 같다고 문제제기를 해 책을 뒤져서 진달래임을 확인했다.

주환, 예은이는 곳곳에 동백, 은행이 보였지만 문창 앞에 있는 동백, 은행나무에 마음을 두고 있어 다른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문창에 가서 동백나무는 가쁜히 이름을 걸어주었지만 은행나무, 도토리나무는 키가 너무 커 예은, 도빈이가 하기엔 역부족이어서 선생님들이 가지를 늘어뜨려 겨우 달아주었다.

호두나무는 아예 가지에 손이 닿지 않아 난감했는데 샘이는 긴 나무막대를 호두나무 곁에 심어 거 기다 걸어주자고 했다. 나무막대가 힘이 없어 쓰러지자 호두나무에 난 구멍에 작은 나뭇가지를 꽂고 틈새에 돌맹이로 고정을 시킨 후 그 나뭇가지다 이름을 걸어주었다.

○ 부산대 안 아는 나무에 이름 걸어주기 2

문창회관 개구멍 옆 앵두나무와 개나리에 경빈, 유영이가 각각 이름을 달아주고 문창회관 앞 벚나무는 샘이가 선생님과 함께 이름을 써서 달아주었다. 샘이는 멀리서 벚나무를 쳐다보면서 웅기종기 모여 있는 꽃들을 "벌집 같다."고 표현했다. 미리내계곡을 따라 오르면서 매화꽃잎이 수북히 떨어져 있자 지은이는 "어젯밤에 눈이 많이 왔네"라며 시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다.

구내서점 아래 계곡에 향나무랑 비슷한 열매를 가진 나무가 있어 책을 뒤져 '삼나무'임을 알고 이름을 달아주었다. 그 일대가 삼나무밭을 이루고 있어 정훈, 지현, 산들, 서영, 주환, 혜림이가 이름을 적어 붙여주었다. 도빈이는 인덕관 앞에 있는 아주 큰 플라타너스 나무에 이름을 달아주겠다고 하더니 너무 높아 오를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옆에 있는 키 작은 향나무를 가리키며 거기에 이름을 달아주겠다고 했다. 향나무에 유현이도 이름을 붙여주고 지은, 현이는 대나무에 이름을 붙여주었다.

○ 자기 나무 정하기 - 금정회관 뒤편 나무 이름 달아주기

자기 나무를 정해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기로 했다.

예은이는 기숙사 앞에 핀 매화도 아니고 벚꽃도 아닌 둘을 섞어 놓은 듯한 꽃이 핀 나무를 자기 나무로 하겠다고 했다. 그 나무 밑에 복숭아씨가 많아 복숭아나무를 책에서 찾아보니 똑같았다. 예은이는 복숭아나무에 '송예은나무-복숭아나무'라는 이름표를 걸어주고 나들이 갈 때마다 복숭아가 열렸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다. 복숭아나무를 복사나무라고도 한다니까 입담 좋은 주환이는 "그럼 복사를 해야겠네."하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금정회관 뒤편에 가서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둘러보고 이름을 달아 주었다. 매화가 지고 난 뒤 예기 매실이 주렁주렁 열린 걸 보고 아이들은 매실 음료수, 매실주, 매실 엑기스를 만들 수 있겠다는 꿈에 부풀고 소나무에 핀 꽃이 다른 꽃들과는 모양새가 다르자 아주 신기해했다.

호랑가시나무, 향나무, 새롭게 알게 된 명자나무에 이름을 걸어주었다.

경빈이는 "우리 이리다 세상에 있는 나무를 다 알게 되면 어찌지?"하는 기우를 하기도 했다.

○ 자기 나무 정해서 관찰하기 - 벚나무

유영이, 경빈이가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벚나무를 자기 나무로 지목해 집중 관찰해 보았다. 이미 꽃이 지고 잎이 무성히 나있고 열매가 맺어 있었다. 나무를 요리 조리 살펴보니 신기한 잎들을 발

견하게 되었다. 벚나무 잎에 풍선처럼 볼록하게 솟은 것들이 있는 것이다. 꼭 애벌레집처럼. "벚나무야, 미안하다."한 후 (아이들은 꽃이나 잎을 함부로 떼면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불가피하게 떼야 할 상황에선 "미안하다"하고 꼭 사과하기를 잊지 않는다) 잎을 떼 보았다. 산들이는 그걸 보자마자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나간 거다."하고 단정지어 말했다. 아이들도 대부분 동의해 나비가 되어 나갔으면 분명 구멍이 있을 거라며 구멍을 찾아 보니 정말 뒷면에 구멍이 있었다. 구멍을 조심스레 열어보니 그 안에 아주 작은 알들이 있었다.

다름 아닌 알집이었다. 벚나무엔 풍선처럼 생긴 알집 말고도 잎을 또르르 말아 그 안에 알을 숨겨 놓은 알집도 있었다. 모두들 새로운 발견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하루였다.

즉석에서 벚나무 잎과 알집 그리고 버찌를 자세히 그려보기도 했다.

○ 새 터전 마당에 있는 나무 이름 달아주기

마당에 무슨 나무들이 있는지 찾아보니 열 가지가 넘었다. 동백, 목련, 모과, 바나나, 모란, 종려나무, 단풍나무, 주목, 호두나무, 철쭉, 키위, 소나무 등 테마나들이로 나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미 이름들을 다 채고 있었다.

유교과에서 참관 온 선생님들이 만들어 준 예쁜 이름표에 이름을 적고 그림에 색칠을 해 나무 하나 하나에 이름을 달아주고 가지, 오이, 호박, 방울토마토, 지면패랭이에도 달아 주었다.

○ 자기 나무 정해서 관찰하기 - 화살나무

도빈, 현이가 자기 나무로 지정한 화살나무를 관찰하기 위해 가면서 아이들은 바로 화살나무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전 우리의 손길이 닿았던 나무들에 어김없이 관심을 보였다.

매실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고 자기가 이름을 붙였던 매화나무의 매실을 맛보면서 어느 매실이 맛이 있는지도 가늠해 보고 소나무꽃의 수술, 암술의 모양?색들도 나무마다 다름을 확인했다. 종려나무의 꽃이 접질을 벗고 조금씩 나온 걸 보고는 옥수수라면서 먹는 시늉도 했다.

드디어 화살나무에 도착해 생명활동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듯하던(그래서 샘이는 장난감 나무라는 별칭을 지어주기도 했었다) 나무에 잎도 나고 꽃도 핀 걸 보고 모두 신기해 했다. 꽃이 특이하게 연두색이고 꽃잎은 네 장, 암술 1개, 수술 4개임을 살펴보고 '우리나무 백가지'에 있는 화살나무에 관한 이야기도 읽어주면서 화살나무의 유래, 용도에 대해 익혔다. 현이는 '허헌이 나무-화살나무'를 자랑스럽게 써서 붙여주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림을 그려 보았다.

○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기

순영샘이 유교과 사무실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빌려 오셨다. 그 카메라는 좀 무겁긴 하지만 캠코더처럼 액정이 있어 아이들이 보고 찍기에 좋고 필름대신 디스켓을 넣어 컴퓨터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자료화시키는 데 사진보다 훨씬 선명하고 보기 좋았다. 꼭 구입해서 학습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았다. 이제까지 발견한 신기한 것들을 카메라에 담아 보자고 하니 샘이는 샘이 벚나무에 있는 알집을 찍어보라며 유영이랑 합세해 곤충알이 잎 가득 들어있는 것, 어미 무당벌레가 함께 있어 무당벌레 알일 거라고 추정한 노란 색의 알들을 찾아냈다. (그 뒤 무당벌레 애벌레들이 벚나무에 경

빈이 표현대로 발을 이루고 있어 노란 색의 알들이 무당벌레알이었음을 입증해 주었다.)

예은이는 매실나무에 있는 애기 무당벌레를 찍었는데 무당벌레 애벌레가 무당벌레와는 달리 길쭉하자 정훈이는 “껍질(허물)을 벗으면서 점점 뽕뽕해지겠네” 하며 나뭇대로의 추리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도빈, 현이는 일편 단심 화살나무에 애정을 쏟으면서 화살나무를 찍었다. 그의 0.1mm 필카 말까 하는 빨간 색의 벌레, 화살나무 근처에서 만난 털두꺼비 하늘소 등을 발견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무와 공생하는 곤충들에게로 관심이 전이되기도 했다.

○ 여러 가지 일

여러 가지 모양의 잎을 교사가 나뭇이길에 채집해 잎을 하나 하나 보여 주며 똑같은 걸 찾아오는 놀이를 하면서 잎의 모양이 가지각색임을 살펴보았다.

토끼풀잎, 단풍잎, 쑥 등은 흔히 보는 것들이라 모두 손쉽게 찾아 왔고 놀이형식으로 하니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여를 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향나무를 보여 주며 찾아오게 한 후 이름이 무엇인지 물으니 의외로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이전 어린이집 마당에 있던 나무라면서 말이다. 단풍잎은 가을이 되면 물이 들고 겨울이 되면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데 향나무, 소나무 등은 겨울이 되어도 왜 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숙제를 내준 후 오후 식물퀴즈대회 때 그 답을 맞춰 보기로 했다.

향나무 잎이 고기 비늘처럼 생긴 것을 자세히 관찰한 후 그림으로 옮겨 보기도 했다.

■ 활동의 예

주제 | 돌

- 자연에 나가서 돌 모아오기
- 돌을 색깔별, 크기별, 무거움, 가벼움, 자기가 들 수 있는 돌 없는 돌 등으로 분류하기
- 돌담 쌓기, 돌담 쌓아서 돌을 던져 무너뜨리기
- 돌을 물에 넣었다 댔 후 색깔 변화 관찰
- 돌로 소리 내기, 눈 감고 소리 들어보기
- 돌로 그림 그리기
- 돌 사이에 잎을 넣어 돌이 무너지지 않게 잎 빼내기
- 나뭇잎 위에 종이를 얹고 돌로 찌기?수분이 많은 잎과 적은 잎 구별
- 돌 숨기기(양손 중 어느 손에?)
- 양지에 있는 돌과 음지에 있는 돌 온도 느끼기

이러한 ‘돌’에 대한 활동 후 돌에 대한 아이의 개념은 달라지고 놀면서 ‘돌’에 대한 개념을 배워 나간다.

그 외 주제로 나뭇잎, 나무열매, 개미, 도토리, 길가의 꽃, 매미알 찾기 등을 들 수 있다.

우리그림 (민화)그리기

○ 민화란?

민요나 사물놀이의 토속적인 가락과 같이 토속적인 선묘가 있어 서민들의 순박한 마음을 표현해 내는 그림을 말합니다. 민화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낙관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화는 고분벽화에서 고려 청자, 청동기 시대의 암각화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현대에 와서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았습니다.

○ 민화를 주제 선정이었던 계기

평소 민족문화의 전통계승을 중요하게 여겨 해마다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실천하기도 했지만, 비슷한 주제와 활동의 반복으로, 올해는 좀더 새로운 주제와 심화된 활동으로 아이들과 충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던 중 여전히 우리와 가까이 있지만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어렵게만 느끼며 접근하지 못했던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향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민화를 주제로 선정하여, 아이들과 교사, 부모님들에게 우리 그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화와 친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해줄과 동시에 민화 그리기와 감상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민화에 대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시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 민화 주제수업에 들어가기 전

어떤 주제의 활동이든 교사의 사전 준비가 중요하겠지만, 민화란 주제는 교사에게도 생소할 뿐더러 사전지식도 부족하여 교육활동 개시 전 진행에 앞서 4주 정도의 소모임 시간을 통해 민화에 대한 학습과 프로젝트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민화의 특징과 종류, 민화 그리기 기법 및 민화에 나오는 문양의 상징성, 소재별로 본 민화의 특징과 기원 등에 대해 알아보고, 7세와 방과후 아동에게 적합한 수준에서의 민화교육의 목표, 중심주제를 정하고, 4주 기간의주간 교육계획안과 필요한 도구, 물품 목록을 정하였습니다.

○ 민화주제중심수업기간

민화 프로젝트는 만 5세반 두 반, 방과후 한 반을 대상으로 2002년 10월 14일 ~ 11월 9일 (4주)기간동안 전개하였으며, 민화 전시회(2주)를 개최함으로써 마무리하였습니다.

○ 교육 활동을 위한 준비

(1) 환경 구성

① 게시판 전시

대형 민화 그림 자료, 민화를 소개한 책이나 화보집

② 실물자료

먹과 벼루, 한지, 접시, 연적 등의 민화 재료

(2)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정보

① 현장 견학

안산 단원 미술제

경기도 민속 박물관

인사동 전통골목

② 참고도서

- 윤열수, 「Korean Art Book 민화 1, II」, 예경, 2002, 서울

- 한은희, 「옛마을 풍속」, 이미지프레스, 2002, 서울

- 이지수, 「우리 민화로 읽은 숲속의 학 이야기」, 이미지프레스 2002, 서울

- 나정대, 「민화 그리기」, 대원사, 2000, 서울

- 안성희 외 1인, 「박수근 마을에 놀러 오세요」, 나무숲, 2002, 서울

- 김현숙, 「나무가 되고 싶은 화가 박수근」, 나무숲, 2002, 서울

③ 인터넷 관련 사이트

번호	인터넷 주소	내용
1	http://www.sottae-museum.co.kr (백두에서 알타이까지)	'조선의 미소' 나 책을 통해 민화를 옛 낙서의 한 부분으로 소개
2	http://www.unsanok.co.kr	민화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http://www.danwon.co.kr	단원 미술제에 대한 소개
3	http://www.Korea-museum.go.kr (국립민속 박물관)	세시 풍속과 관련된 창작동화 소개

○ 교육활동 전개 와 마무리 (만 5세반을 중심으로)

1주 민화 이야기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안산의 지역축제인 단원미술제를 통해 민화에 관심을 갖고, 민화의 유래 및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단원미술제에서는 단원의 그림뿐 아니라 그림 속의 생활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코너들이 많았는데, 한지?도자기도 아동들이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단원에 대한 흥미와 관심(생활과 결합된 미술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화에서 여기 그림으로 분류되는 잡화그림과 초충도 등 친숙한 활동과 현대작가 중 민화의 느낌과 잘 어울리는 박수근의 작품을 감상하고 그의 그림을 흉내내거나 현대기법과 접목시킨 톱밥그림(젓소와 톱밥을 섞어 목탄으로 그림을 그림)도 그려보면서 본격적인 민화 그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2주 호랑이와 까치

다양한 민화의 그림 중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와 까치는 옛이야기라는 풍부한 접근방법도 있었고 제시해줄 수 있는 자료도 다양해 교사들에게도 용이한 주제였기에 선택하게 되었는데 아주 적절했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 호랑이 모사그림(실제 민화를 보면서 따라 그려보기)

- 재미있는 무늬 채우기(호랑이 무늬채우기)

- 찰흙 부조 만들기(호랑이와 까치 및 용)등의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호랑이와 까치' 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친숙하게 접했던 그림일 뿐 아니라, 한가지 소재이지만 다양하게 표현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작가의 소망과 기원뿐 아니라 개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민화의 특색을 보여주는 그림들을 통해 보다 재미있게 민화를 접하고 또한 표현 할 수 있었는데, 처음 모사단계에서 창작까지의 과정이 매우 가치있는 활동이었으며 아이들의 그림 속에서 아이들의 개성이 담긴 다양한 호랑이가 탄생했습니다.

3주 십장생도

십장생도의 구성요소와 상징에 대해 알아보고, 그림에 담긴 선조들의 소박한 바람을 이

해하기방법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민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대중성, 실용성, 유목적성(어디에 사용 것인지 목적이 분명 - 문배 그림, 병풍 그림 등), 현재 지향적(장수기복)을 잘 보여주는 그림인 십장생도를 그려보며 특히 그림 속에 바람을 담아, 실생활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에 주목하였는데, 십장생의 주인공들을 유추해 보는 활동에서 아이들도 해, 구름 등을 찾아내었고, 특히 불로초 등 처음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 놀라워하고 즐겁게 표현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화 그리기 3주째에 들어서자 이제 제법 능숙하게 먹을 갈고, 붓을 사용하며, 민화의 느낌을 잘 살려내는 아이들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십장생도를 꾸준히 관찰하며 세심히 하나씩 그려 넣은 병풍그림은 만 5세의 그림이라 믿겨지지 않은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 나름대로의 소원을 담아 그린('엄마, 아빠랑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십장생도이기에 더욱 특별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4주

민화 전시회

그동안의 활동을 공유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성취감과 소중함을 느끼기 위한 민화 전시회를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그린 그림이지만, 액자에 담겨 멋지게 전시된 그림을 보며 뿌듯해 하며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평가

4주간의 짧지 않지만, 또 길지도 않았던 기간동안 민화 속에 폭 빠졌던 교사와 아이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맘껏 보고, 그리며 신나게 활동할 수 있었기에 즐거웠던 한달이었습니다.

교사가 주입하지 않아도 어느새 눈에 익어버린 문양들과 그림들... 민속박물관에서, 또는 길거리, 집에서, 물건들 속에 담겨있는 민화들을 찾아내곤 즐겁게 서로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민화 프로젝트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는 만큼 느낀다"는 유흥준 교수의 말은 틀리지 않았음을 민화수업 후 박물관 견학이나 화성 답사에서 아이들의 재잘거림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교사는 기뻐고, 부모님들은 이것이 내 아이의 그림이 맞냐는 탄성으로 연신 입을 다물지 못했던 전시회 기간 내내 모두가 즐거웠습니다.

올해는 먹내음 그윽한 교실에서 지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한데 어떠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첨부자료

3주간의 교육계획안과 아이들의 그림 및 활동사진 몇 장을 첨부합니다.

구분	주제	주요 내용	주요 자료	주요 방법	주요 결과
1주	민화 소개	민화의 정의, 특징, 역사	민화 소개 자료	강의, 시청각	민화 소개 자료
2주	민화 그리기	민화 그리기 방법, 재료, 도구	민화 그리기 자료	강의, 시청각	민화 그리기 자료
3주	민화 전시회	민화 전시회 준비, 진행	민화 전시회 자료	강의, 시청각	민화 전시회 자료
4주	민화 감상	민화 감상 방법, 감상문	민화 감상 자료	강의, 시청각	민화 감상 자료
5주	민화 연구	민화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민화 연구 자료	강의, 시청각	민화 연구 자료
6주	민화 발표	민화 발표 방법, 발표 결과	민화 발표 자료	강의, 시청각	민화 발표 자료
7주	민화 전시회	민화 전시회 준비, 진행	민화 전시회 자료	강의, 시청각	민화 전시회 자료
8주	민화 감상	민화 감상 방법, 감상문	민화 감상 자료	강의, 시청각	민화 감상 자료
9주	민화 연구	민화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민화 연구 자료	강의, 시청각	민화 연구 자료
10주	민화 발표	민화 발표 방법, 발표 결과	민화 발표 자료	강의, 시청각	민화 발표 자료

기 간	2002. 10월 14일-19일					
주 제	민화 이야기					
목 표	단원미술제를 통해 민화에 관심을 갖고, 민화의 유래 및 특징을 알 수 있다.					
교 육 활 동 내 용						
언 어 생 활	- 주제토의: 민화란 / 민화의 재료 / 단원 김홍도 - 동화: 이 소리 들리니? / 옛 마을 풍속 / 그림그리는 아이 김홍도 / 산골짜기 이야기 - 언어: 민화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탐 구 생 활	- 탐색: 민화재료 탐색 (먹과 벼루) - 시청각 자료(비디오): 옛 마을 풍속 - 조작: 민화 문양 빙고 (틱톡택 빙고)					
표 현 생 활	- 노래: 나무 타령 (백창우) - 민화감상: 김홍도 '서당화' - 미술: 민화 문양 찍기 / 증화그림 (포도즙, 치자, 홍화) / 운동회 포스터 / 뽕밥을 이용한 그림					
사 회 생 활	- 기본생활습관: 겹옷을 예쁘게 정리할 수 있어요. - 역할: 훈장 놀이					
건 강 생 활	- 게임: 50미터 달려가서 문양 찍고 오기 - 전래놀이: 안이 더 좋아 - 신체활동: 팔레터 그림보고 흉내내기					
언어·수 지 도	- 언어: '파·피' 익히기 - 수: 50까지 수의 순서					
건강 및 특 별 활 동	월 (14)	화 (15)	수 (16)	목 (17)	금 (18)	토 (19)
	2:00 유아체육 고리걸기	2:30 영어 My house.	9:50 건강 단원미술제 (건강비 1,000원)		2:00 국악 오방진 장단	1:00 가족체육대회

기 간	2002. 10월 21일-26일					
주 제	호랑이와 까치					
목 표	'호랑이와 까치' 민화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민화그리기를 경험한다.					
교 육 활 동 내 용						
언 어 생 활	- 주제토의: 호랑이랑 까치랑 / 민화에 등장하는 호랑이 - 동화: 호랑이와 꽃감 / 은혜 모르는 호랑이 / 악기장수 호랑이 / 나무꾼과 호랑이 - 동극: 은혜모르는 호랑이 - 언어: 문자도					
탐 구 생 활	- 탐색: 민화재료 탐색 (한지와 붓) - 시청각 자료(비디오): 숲속의 학 이야기 - 수·조작: 떡 하나 주면 안잡아 먹기					
표 현 생 활	- 노래: 뒷산 높은 호랭이 / 호랑장군 - 음악감상: 대금산조 - 미술: 호랑이 모사그림(공동) / 재미있는 무늬 채우기 / 활쫓부조(호랑이)					
사 회 생 활	- 기본생활습관: 밥을 먹은 후 흘린 자리를 깨끗이 치울 수 있어요. - 역할: 은혜 모르는 호랑이					
건 강 생 활	- 게임: 컵속말 전달하기 - 전래놀이: 한삼춤 (호랑장군) - 전래놀이: 뜰어내기					
언어·수 지 도	- 언어: '하·히' 익히기 - 수: 수의 크기 비교					
건강 및 특 별 활 동	월 (21)	화 (22)	수 (23)	목 (24)	금 (25)	토 (26)
	9:50 가을걷이 (건강비 4,000원) 200 유아체육 (태권도)	2:30 영어 Let's color			2:00 국악 (신도깨비 장단율동)	

기 간	2002. 10월 28일~11월 2일					
주 제	심장생도					
목 표	심장생도의 구성요소와 상징에 대해 알아보고, 그림에 담긴 선조들의 소박한 바람을 이해한다.					
교 육 활 동 내 용						
언 어 생 활	- 주제토의: 심장생도의 주인공 / 생활속에서의 쓰임새 - 동화: 나뭇꾼과 선녀 / 그림속을 입은 집 / 심청전 / 민화네집 - 언어: 심장생 수수께끼					
탐 구 생 활	- 탐색: 민화재료 탐색 (접시, 연적) - 수·조각: 심장생도 완성하기 / 심장생도 빠진 그림 찾기					
표 현 생 활	- 노래: 해야해야 - 민화감상: 심장생도 - 미술: 신문지 구겨 찢기 / 사포그림 / 병풍그림					
사 회 생 활	- 기본생활습관: 자기 사물함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어요. - 역할: 종이인형 놀이					
건 강 생 활	- 게임: 거북이 경주 - 전래놀이: 일삼사 - 신체활동: 학다리 요가					
언어·수 지 도	- 언어: 받침없는 낱말 - 수: 두마디 규칙 알기					
건강 및 특별 활동	월 (28)	화 (29)	수 (30)	목 (31)	금 (1)	토 (2)
	2:00 유아체육 (장애물 경기)	2:30 영어 (Who can do it?)		9:50 경기도 박물관 견학 (견학비 6,000원)	2:00 국악 (딱쇠놀이)	

기 간	2002. 11월 4일~11월 9일					
주 제	민화 전시회 / 국악 동요 동시 대회					
목 표	민화 전시회를 통해 그동안의 활동을 공유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성취감과 소중함을 느낀다.					
교 육 활 동 내 용						
언 어 생 활	- 주제토의: 즐거운 민화 그리기 / 민화 전시회 / 국악 동요 동시 대회 - 동화: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 / 반쪽이 / 시간 이야기 - 쓰기: 민화 도감 만들기					
탐 구 생 활	- 과학: 한국화 물감 만들기 - 수: 내가 좋아하는 민화 그래프					
표 현 생 활	- 노래: 산도깨비 - 말놀이: 우리집에 왜 왔나 - 미술: 탈목걸이 만들기 / 민화 전시회 포스터 만들기 / 초대장 만들기					
사 회 생 활	- 기본생활습관: 자기 물건을 잘 챙길 수 있어요. - 역할: 국악 동요 동시대회 놀이 - 쌓기: 무대 만들기					
건 강 생 활	- 게임: 소고 치고 돌아이고 - 전래놀이: 굴렁쇠 굴리기 - 운동: 음체조					
언어·수 지 도	- 언어: 어떤 악기 일까? - 수: 세마디 규칙 알기					
건강 및 특별 활동	월 (4)	화 (5)	수 (6)	목 (7)	금 (8)	토 (9)
	2:00 유아체육 (매트 다리벌 려 뛰구르기)	1:00 영어 (Question song)		9:00~19:30 민화 전시회 10:30 국악동요 동시대회	2:30 국악 (자진모리 장단)	

정기총회를 다녀와서

하미선 · 갯골어린이집

충청도도 춥지만 서울은 더 추울 텐데....

처음으로 참석하는 보육교사 정기총회엔 나보다도 함께 가는 딸아이가 더 흥분하여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름수련회를 못 간 것이 못내 아쉬워 이번 정기총회만큼은 꼭 가고 말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총회참석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마음의(?) 준비를 했었다. 지회도 없고, 또 회원들간의 안면도 별로 없던 차라 혼자서는 외로울 것 같아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가서 한국보육교사회의 숨은 매력을 느끼고 싶었다.(정기총회 갈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나를 비롯한 동료들은 마치, 좋은 프로그램이 준비된 곳으로 직원 단합대회 가는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연수원에 도착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한꺼번에 왕창 만나게 된 것 같았다. 편안해 보이는 그 얼굴들은 하나 같이 오랜 경력으로 푸근하게 아이들을 감싸며 생활하시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전화로만 인사했던 이경녀 사무국장님(생각보다 귀여운??분이었어요), 일년동안 아이들과 함께 연구하고 작업한 자연물을 이용한 염색을 전시하고 열심히 설명해 주시던 강영신 선생님, 그리고 더~더 많이 여성스러워진 이윤경 공동대표님(몰라 불편 했어요), 정성스럽게 동화책을 만들어서 보여주신 부산지회 선생님들(사실은 고향사람 만난 것 같아 무진장 아는 채 하고 있었는데 말도 못 붙여 봤네요), 그리고 그 날 처음 만난 여러 선생님들....모두 너무 너무 반가웠습니다.

교육위원회 연구발표를 들으면서 그동안 보육교사회에서 고민하고 연구해온 우리 보육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올바른 보육철학의 확립이 절실했음을 느꼈다.

조직위원회의 보고는 조직논의에 대한 회원들의 그동안의 고민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보육 현장에서 일해 오면서 항상 목말라 하던 보육교사의 든든한 힘이 되어 줄 조직! 그 조직체 건설을 고민해 온 선생님들! 정말 멋진 분들이었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보육교사회를 이끌어 오신 선생님들의 열성적인 모습을 보니 현장에서 10년 넘게 활동해 왔음에도 특별할 것 없는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했다. 좀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싶었는데 시간은 벌써 한밤을 향하고 있었으니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나를 새롭게 !

조직을 새롭게 !

꿈을 위해 도약하는 2003년 !"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명의 밤 !

지회가 없는 기타지역 갯골! 어디에 끼어볼까? 그 동안 몇 번 끼워 준 경기지부에 또 끼워 달릴까?? 고민 끝에 처음 보육교사회 모임에 참석한 우리의 느낌들을 공유하고 싶은 생각에 우리끼리 모여 앉았다. 하지만 이야기도 시작하기 전에 위로 겸 찾아 주시는 방문객으로 우린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다. 처음 참석한 신입회원들이 행여 외로울까봐 차례로 들어오셔서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회원님들, 그때 그 자리가 그림습니다.

잠을 잔 건지.... 뚱뚱 부은 눈으로 밥을 먹고 모여 앉은 총회 !

신입회원들엔 그다지 즐겁지 않은 시간이었다. 엉덩이에 뿔이 두 개쯤은 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총회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해 온 한국보육교사회가 생각보다 적은 인원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왔다는 사실이다. 사만이 넘는 보육교사들 중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보육정책문제에 관한 한 여기저기 빠지지 않고 보육교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여준 보육교사의 모습은 정말 놀랍고도 대단한 일이었다. 다시 한번 보육교사회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너무나 적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정열적으로 일해오신 상근직원들에게 (선생님들보다 조금 많이 받고 일한 것이 미안했어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나도 한국보육교사회원으로서 보육교사회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해진다. (놀아줘~잉) 언제 또 여러 선생님들과 하룻밤(?)을 함께 할 수 있을지.....지금부터 보고 싶어진다.

집으로 오는 길 !

서울나들이 온 김에 이 겨울 내내 찾아 해매던 가볍고 따뜻한 털 옷 하나 장만했다. 시골할머니 이신 우리 엄마 말씀하시길 ?미선아, 저 개털인지 뭔지 갖다 내벼라(버려라) 보기 싫다? "개털??? 할부금도 안 냈는데.....?..." 다음 정기총회 땀 개털옷 입고 가 볼거나.....



나를 새롭게! 조직을 새롭게! 꿈을 위해 도약하는 2003년

임미화 · 동그라미어린이집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글 쓰는 일은 저에게 정말이지 힘든 작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타칭 모자소녀(?)랍니다..(문화팀 공연때 검은 모자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그 소녀(???)) 저는 소녀라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밖에 나가면 '아줌마'라는 말을 더 많이 듣는답니다..)

특히 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찌하다보니 항상 모자를 쓰고 있게 되네요--그렇다고 매번 머리를 안 감는다가나 주먹만한 뽕(?)이 있다가나, 뽕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벌써 총회를 세 번째 참석합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재미있습니다... 처음 총회에 갔을 때에는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첫날 행사에만 참석하고 집으로 컴백을 했던 기억이..이었던 제가 올해는 총회에서 많은 선생님들께 얼굴도장 짝짝 찍고 돌아온 것 같아 뿌듯합니다..

문화팀원이 되어 공연을 준비하고 연습하고(정말이지 원에서 음악 틀어놓고 열심히 연습했었는데..) 공연하고 내가 좋아하는 뒤편이까정...(정말 잊을 수 없음당!!)

아직은 많이 어려웠던 경너셈과도 많이 친해졌고, 항상 밝은 웃음이 보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 지민샘, 올해 4호봉이 되셨다고 너무나 좋아하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정수샘, 상견례 준비와 문화팀 준비까지 고생하신 현정샘(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 기회를 빌어 너무나 고생하셨다고 선생님들과 연습하면서 너무 재미 있었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문화팀 내 년에도 다시한번...ㅇㅇ??

공연하느라 저희가 한 공연을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선생님들께서 잘했다고 칭찬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한마디의 칭찬이 아이들의 자신감을 정말 많이 키워 준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지 혼나겠지만 사실 회의하고 조직논의 한 것 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공연하고 그 날 저녁에 있었던 뒤편이. 정말 화끈하고 재미있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옵니까??이것이 저의 한계인 것을.. 그렇다고 제가 총회에 가서 회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즐기만 한 것을 절대 아님

니다. 지부 조직논의 때 얼마나 열심히 회의에 참석하고 서기임무에 최선을 다했는지(회의하는데 입은 안 아프고 손만 아팠으니 문제가 되죠,,ㅋㅋ).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저는 보육교사회 선배님들 따라 가려면 정말 정말 멀었습니다..(맞습니다-무지 맞구요!!)

아차! 중요한 이야기를 빠뜨릴 뻔 했군요.. 아직 많이 부족한 저에게 '실천하는 교사상'이라는 큰상을 주신 보육교사회 측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 날 저에게 소감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뛰어볼라구요-(그런데 어찌조??저 100m22초 걸리는데...ㅋㅋ)



나를 성장시킨 조직을 생각하며

이기원 · 본회 전 공동대표

2003년 한해를 시작하며 나는 훌륭한(?) 자리를 떠났다.

내가 굳이 훌륭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조직에서 받은 뜨거운 애정과 격려가 가득 채워진 자리이기 때문이다.

3년 전 공동대표를 제안 받았을 때 솔직히 난 많이 주저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역량부족이라는 현실적 조건과 그 당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던 나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 무거운 제안의 몇 개월을 흘러 보내고 10년을 조직에 몸 바쳐 활동했던 정희연 전 회장님의 모습을 지켜 보며 그 무게를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결심으로 공동대표 후보에 나섰고 선출되었다.

굳이 내가 이렇게 흘러간 3년 전 기억을 더듬어 글을 올기는 것은 한국보육교사회 활동을 하면서 누구든 한번은 대표이든, 혹은 지역일꾼으로 제안 받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오기 때문이다.

12년 전 시작한 수원지역 탁아활동에서 나는 급성장한 일꾼이었다.

실제 활동한지 얼마 안 돼 지금의 지부장격인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그 전제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열정과 목적의식의 출발지점이었다. 그러다 보니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활동의 중심에서 비껴나 탁아운동의 당위성 속에 활동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 많이 깨지는 아픔과 고민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내가 한 해 한 해 활동해 가면서 가지는 나의 한계와 갈등의 장벽이 그리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나는 참 많은 직책을 거쳤고 시행착오 역시 많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의 후회와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으니 지금은 그때 맡았던 역할과 활동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참 소중한 경험과 실천이었음을 확신한다.

그 이유는 지금의 내가 있게 한 원동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일했던 일꾼들이 조직을 떠나거나 아니면 활동의 폭을 대폭 줄이는 모습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

사실 일꾼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한사람의 결의와 실천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일꾼이 속해있는 지역과 조직이 어떻게 격려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 상생 활동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상생 활동에 대해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

고 싶다.

공동대표자리를 떠난 지 1달. 지금 나는 기쁨과 설렘 속에 글을 쓰고 있다.

단지 공동대표라는 무거운 짐을 놓아서가 아닌 그 동안 활동하느라 미처 바라보지 못한 나의 성장을 하나 하나 곱씹고 있기 때문이다.

초창기 열정만 있었을 때 그 모습을 너무나 이쁘고 기특하게 봐주고 격려해준 지탁연 시절 선배님들, 그리고 중반 활동시기의 시행착오에도 항상 믿고 의지해 주었던 지역 회원들, 그 후 일생에 한번 올라 탈까 한 대표의 중책을 맡고 항상 부족한 나를 채워주었던 중앙집행위원(이윤경대표, 이경녀 전 사무국장, 이선주 현 사무국장, 서은희 전 공동대표)와 운영위원들께 정말 감사와 애정을 보내고 싶다.

마지막으로 총회때 전달받은 회원들이 전해준 희망의 학을 틔우는 대로 보며 힘을 받고 있다. 그 안에는 회원들이 손수 적어준 격려와 칭찬과 애정이 묻어 있기에 그 힘으로 앞으로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나는 한국보육교사회 회원이면서 수원여성회라는 지역 여성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실제 한국보육교사회 활동이 없었다면 지역의 활동은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그 역사성 속에 10년 전 나에게 걸었던 '나 아니면, 나라도'의 최면에서 벗어나 10년 후 지금 나는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나'를 이야기하며 활동하고 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바로 이런 조직이다.

그리고 그 조직에서 10년 넘게 성장하고 있는 나는 회원들에게 내가 받은 것들을 나누는 정말 좋은 선배이자 동지이고 싶다.



이경녀 전 사무국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 회원님들이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이경녀 선생님은 사무국을 그만 두시고도 신적인 일거리로 아직도 일주일에 한두번씩은 출근 아닌 출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사무국장을 그만 뒀다는 실감이 별로 나질 않는다는군요.

4월이면 인도와 영국으로 한바탕 휘휘 돌아보시고 돌아오실 이경녀 선생님의 고별기는 매콤한 카레향과 비빔밥 안개비 내용 섞어 다음호에 실을까 합니다. 기다려주세요.

한국보육교사회 회원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김진숙 · 서울지부장

깊은 만남.

작년 한해를 시작하며 정한 나의 표어다. 사람들과 속내를 나누며 살아가자고 다짐했다. 운영위를 하면서 정한 나의 과제 중의 하나도 그래서 회원들과 일대일 만남을 하는 것으로 정했다. 물론... 일대일 만남은 쉽지 않았다. 새로이 한해를 시작하며 다시 '깊은 만남'을 나의 주제로 정했다. 다른 사람들과, 또한 나와의 깊은 만남.

서울지부의 계획대로 해나가면 깊은 만남이 저절로 이루어 질 것 같다. 일하면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을 다 꼬집어내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할지를 나누다 보면 서로에 대해, 우리에 대해, 할 일에 대해, 나갈 길에 대해 너무나 깊이 있게 알게 될 것 같다. 난 기대해 본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 보육현장을 속속들이 알게 되고, 보육교사들을 속속들이 알게 되기를. 그 앞을 시작으로 모여들고 나누고 만들어 가기를...

3년째 지부장을 맡는다. 이젠 회 운영에 대해 알만도 한데 올해가 더 어렵게 여겨진다. 하지만 어려움을 나눌 준비가 되어있다. 회원들이 어려움을 함께 할 준비가 되어있듯이.



김명선 · 부산지부장

지겨울 수 있는 인사말을 신선하지도 않은 인물이 또 다시 하게 되어 우선 미안한 맘이 듭니다. 이기원대표의 중간사임으로 2003년 올해 공동대표의 역할까지 맡게 되어 '장'이란 명함만 몇 개씩이나 달고서는 그 속 알맹이에 뭘 채워야 할지 아직 몰라 어리버리한 상태로 헤매고 있습니다.

부산은 드디어 장기집권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누구는 10년은 해야 안되겠나!(40+10년=50살?)하며 끔찍한 악담을 선사하기도..... 그러나 진심으로 이 무



정혜정 · 대구지부장

안녕하세요.

대구보육교사회의 정혜정입니다.

우리 지부는 2001~2002년에 걸쳐서 회원들 개인에게 아주 중대하고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새로 시작된 2003년에는 맘쏘려 뛰는 지부로서 성실히 따라가겠습니다.

회원님들, 대구지부를 지켜보아 주세요.

박은아(일명 개구리선생님) · 인천지부장

안녕하세요?

처음 보육교사에 발을 들인 지가 아마 '93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팔팔한 아가씨였는데.

세쌍둥이어린이집에 들어와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처음 지탁연 여름 연수를 갔을 때는 너무 가슴이 벅찼답니다. 이제 10년의 시간이 흘렀고 저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 이사한 세쌍둥이와 새쌍둥이의 방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규모가 커져서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꼭 차면 복권에 맞는 것보다 더 큰 대박이죠.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천지부도 좀더 싱싱해질 것 같네요. 신입의 가슴 벅찬 마음을 갖고 일하고 싶네요. 그동안 공백기가 있어서 일을 배우는 것은 좀 걸리겠지만, 마음만 잘 먹는다면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봄인데 눈이 오네요. 이 눈이 그치면 정말 따뜻한 봄이 오겠지요. 봄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더라도 격려해주시고 다정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열심히 해볼랍니다.

보육교사로 일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 제기된 우리가 지금껏 해 왔던 관계중심철학도 정말 좋은 문제제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교사 그리고 사회가 함께 키가는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이 오는

그 날까지 열심히 뛰시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합니다.
저 지금 아이들이랑 놀러가야 되거든요 재미있게 놀고 올게요. 굿---바이.



최미라 · 광주전남지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광주·전남지부의 새로운 지부장이 된 최미라입니다.

오랜 시간을 보육교사라는 이름으로 아이들과 함께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기는 처음이네요. 반갑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로 변화의 시기라고 하죠? 참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들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슴 부푼 한해를 시작합니다. 첫 느낌이 아주 좋아요. 이 새로운 시기에 지부장을 맞게 되어서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보다는 더 많은 보람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어요.

기쁘고, 씩씩하게 올 한해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힘든 시간의 고비 고비마다 따스한 위로와 격려가 되어 주셨던 보육교사회 식구들, 모두모두 화이팅입니다.



지연 · 경기지부장

어느덧 아이들과 함께 한지 년수로 13년이 되었다. 개인사정으로 중간에 이 삼 년을 쉬기는 했지만 강산이 한번은 변한 시간이다. 그 동안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를 생각해보았다. 예전 그 당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2003년 양해 그리고 나의 해, 다시금 나에게 예전에 남겼던 아쉬움을 채우기라도 하라는 듯이 역할이 주어졌을 때 한편은 설레면서 한편은 두려움이 생겼다. 시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기에 내가 역할을 잘 수행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지부의 올해의 과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지부 회원 모두가 함께 열심히 하자는 결의를 받으면서 나는 시작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어 작으나마 성과를 얻으리라 확신하면서 이 기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침체되었던 마음이 밝아지면서 흥분되고 있다.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가 적기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올해를 그 시기로 만들고 싶다. 경기지부 회원 여러분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지부 회원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올해에는 모두 서로 많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해로 만들어갑시다. 그리고 숨겨진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볼 수 있는 해로 만들어 봅시다.

경기지부 얼씨구 지화자 좋다. !!!

한일보육교류

한일보육교류연수 회의보고

정리 이강선주 · 본회 사무국장

지난 2월 5일 일본 오오사카의 세이와 보육교소에서 일한보육교류연수협의회와 한국보육교사회, 한일보육교류협의회 관계자들이 모여 한일보육교류10주년 기념식의 평가와 2003년 보육연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가 있었다.

우리 회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와 이경녀 전 사무국장, 이강선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일한보육교류연수협의회에서는 대표인 구와바라 목사님 외에 6분이 참석하였으며, 광주지역의 한일보육교류연수협의회 대표인 박말신 선생님, 김연심 목사님과 이승희 선생님이 참석하였다. 변미양 선생님이 통역으로 참석하였다.

이경녀 선생님께서 한일보육교류10주년 기념식에 대하여 우리 회에서 총회자료집에 실린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사업결산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였다.

일한보육교류연수협의회 의 에다모토 선생님은 10주년 기념식의 준비를 위해 한국측에서 노력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일한보육교류연수협의회 이외의 많은 보육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고, 행사에 좋은 인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박말신 선생님은 지난해에 실시된 제9회 보육교류연수가 10주년 기념식으로 인해 일정이 짧아져 아쉬웠다고 평가하였으며, 한 시설에서 두 명씩 연수를 받는 것이 좋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연수에 대해

- (1) 시설내 모든 교사들과 연수내용이 공유되길 바란다.
- (2) 연수준비를 위해 교사들에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 (3)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일본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싶다.
- (4) 동시대인으로 보육관 뿐만 아니라 생명관, 인생관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윤경 공동대표는 일본의 남자 보육교사들이 연수 오기를 요청한 이유는 한국 내에 있는 '보육이 여성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그리고 이를 계기로 남자들이 보육교사 직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제9회 연수를 통해 우리 회

가 원하던 부분에 대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후 2003년에 실시할 제 10회 한일보육교류연수에 관한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연수기간이 2주간으로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연휴인 11월3일을 피해서 10월20일에서 11월2일까지로 결정하였다.

현재까지 4곳의 보육소에서 2명씩 총 8명의 연수가 가능하였으나 이후 오오사카 지역의 다른 보육소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음으로 최종인원수는 연수시기에 즈음한 8월경에 다시 의견교환을 나누기로 하였다.

한일보육교류연수협의회 소속 발산교회 김연심 목사님은 연수자들이 배우고자 원하는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배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였으며, 이후 연수에서는 연수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배치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기타 홈스테이로 할 것인지 연수자들이 모여 한곳에 숙박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일본측에 전임하여 준비하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회 이윤경 공동대표는 서울에서 10주년 기념식 이후 자리에서 일본쪽에서 제안한 연수받는 시설을 몇몇 어린이집으로 고정화하는 것이 어떠한 제안에 대해 다시 확인하였고,

우리 회가 시설별 회원구조가 아닌 개인 회원구조임을 설명하고 일한보육교류연수협의회와는 다른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전달하였다.

새로운 기회

김미옥 · 광주 · 전남지부



독! 독!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 전남지부의 신입회원 김미옥입니다.

도담도담어린이집에서 2002년 5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으니 아이들과 생활한 지 9개월이 조금 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반정도 이런저런 다른 일들을 하다가 친구 중에 유아교육과를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송원대학 보육교사교육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몰두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거구나! 새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서 조금은 힘들었지만 밤에 집으로 가면서 마음은 편하고 좋았다. 가끔 올려다보는 하늘에서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달, 별, 구름을 보면서 옛일도 추억하는 조금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어린이집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을 하고 학교생활에도 요령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 물건 등에 눈이 둘러졌다. 선생님들은 아이들과의 생활 외에 무슨 일들을 하시는지, 그 중에서도 어떠한 일로 바쁜 것을 보면서 "보육교사회"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다. 특히 도담도담어린이집 선생님들 대부분이 보육교사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보육교사회"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한 7, 8월달에 광주·전남지부 영아교사교육이라는 상반기 열린 강좌를 도담도담에서 하면서 교사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조금 출다가 나중에는 열심히 들었던 것 같다. 보육교사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과 나도 저렇게 바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생겼다. 회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아이들에게도 신경쓰면서 다 하시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함께 근무하면서 자주 느꼈다. 한 · 일 보육교류 행사로 난생 처음 서울도 가보고 한강도 볼 수 있었고, 그런 큰 행사에 참여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

2003년 1월이 되면서 도담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보육교사회 회원이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으니 그냥 당연히 보육교사회에 들어가는 걸로 내 자신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광주·전남지부 보육교사회 총회를 앞둔 며칠동안은 새삼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었다.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다른 선생님들처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라는 쓸데없는 걱정들로 머리 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일단 들어가고 나니까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었다.

"한국보육교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서 신입회원으로 소개도 받고 인사를 제대로 나누지는 못했지만 여러 지부의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좋았다. 그리고 오고 가면서 처음으로 타본 기차와 지하철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지금은 내가 어떠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서 이런 선생님이 되겠다고 세워 놓은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앞으로 물음표에서 느낌표가 되기까지 엄표도 적절히 써 가면서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고 싶다. 물론 보육교사회 활동도 포함해서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아이들에 대한 기대로 어린이집 문을 열고 들어선다.

90년대 한국의 보육현실을 바꾼 여자!

- 최현숙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난 날.

내 나이 스물 세 살에 그녀를 처음 만났다. 당시 그녀는 구로 지역장. 작고 단단한 느낌과 검정 테 안경 속에 살아있는 눈빛, 아무진 입 속에서 나오는 환상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말.... '아! 저 여자 너무 멋있다'가 첫 느낌이었다.

14년이 지난 지금 보육교사회의 명을 받고 다시 목적의식(?)과 설렘을 안고 다시 만났다. 눈빛과 카리스마는 여전하고 거기에 부드러운 포근함까지 더한 모습으로 첫 느낌에 원숙함까지 얻는 정말 변하지 않는 변화를 가진 사람이었다.

90년대 한국의 보육현실을 바꾼 여자! 한국의 보육운동을 이끌었던 여자! 최현숙 그녀는 지금 두레대안고등학교 윤리선생님이 직업이다. 만나는 중간 졸업생에게 전화 받는 그녀의 모습에서 즐기면서 일하고 있는 여유와 경륜을 읽을 수 있었다. 대안학교는 일반사회에서의 주류와 비주류가 바뀌어서 비주류가 주류가 되어 인정받음으로써 놀려왔던 자신의 강점과 끼를 발휘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해주신다. 정말 그도 그렇겠다 싶다. 우리나라의 교육현실과 청소년 문제에 대안학교가 그야말로 그 대안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아직은 시범적 대안으로 또 하나의 유형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한다. 한 학년에 40명, 기숙사 생활, 선생님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학교체계라는 설명에 머릿속에서는 또 하나의 유토피아가 그려진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학생들의 욕구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히 맘에 든다.

설립목적과 학생들의 욕구예기를 하다 남영동시절 탁아운동론 정리할 때 탁아를 매개로 한 교육운동, 여성운동, 지역(빈민)운동을 지향한다는 기존 논의들에 대해 냉혹한 비판과 탁아는 탁아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를 선봉(?)에서 펴온 언니의 활동이 기억나서 우리의 이야기는 남영동으로 흘러갔다. 우리가 얼마나 운동한답시고 활동가 중심의 가치와 신념을 강요했는가에 대한 자기비판과 현재의 NGO 역할, 활동가의 역할 등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언니의 활동 당시 한

국보육교사회의 전신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사람들은 공수가 없었다. 상대방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내가 필요하면 도와 달라하고 너무 그것이 익숙해서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지낸 세월들에 대해서 추억을 더듬었다. 이해관계에 얽혀 서로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는 현실을 한탄하면서..... 아직도 공수를 못 배워 오지랖이 넓은 우리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ㅋㅋㅋ.....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편안한 만남의 시간, 언니는 집에 가는 길 포기하고 후배들(박금희, 임남희)의 이야기를 듣는다. 전혀 흐트러지지 않지만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그 작고 통통한 손을 움직여가며 쫄쫄 정리하고 대안을 내놓는다. 그 테마는 후배들의 혼란, 대구 지하철 참사, 일본고대사, 중국고대사, 아이들 이야기, 언니네 학교 이야기, 그리고 같이 기억하는 우리의 추억까지 너무도 많은 이야기들이 막힘 없이 술술..... 야부리 10단, 9단, 8단이 만났으니 선풍관 없었다.

이쉬움을 뒤로 하고 나만 빠져나오면서 언니가 다음 인터뷰과제를 의식해서 당신은 빼달란다. 박금희로 했다고 해달란다. 금희와 현숙언니 둘 다 만났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이다.

편집위원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오늘의 텍스트는 정말 환상적인 텍스트였다. 환상적인 추억 여행과 비전 만들기 다음 주인공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최현숙 선생님 생일 잔치때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에 둘러싸여서 맨 가운데에 있는 최현숙 선생님의 웃음이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모기와 황소

하연주 · 부산지부 그림책소모임

글 : 현동엽
그림 : 이억배
길벗어린이



지난 여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난 봄부터 초겨울까지 나와 다섯 살짜리 내 딸은 모기와 한 판 전쟁을 벌였다. 우리 집은 어찌 그리 모기가 많은지, 또 나는 모기에 왜 그리도 잘 물리는지 TV를 볼 때도 파리채를 손에 꼭 쥐고 있고 밤에는 자다가도 몇 번이나 벌떡 일어나 모기 잡는다고 식구들 잠을 설치게 만들었다. 딸아이는 그야말로 모기의 밥통으로 몸 구석구석 모기란 놈이 빨대를 꽂은 자리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었다.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 하나라도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절대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스님들은 혹여 자신의 발 밑에 벌레 하나라도 밟혀 죽을까 봐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빗자루로 앞을 쓸면서 다니기도 하던데... 그러나 난 오로지 내 경험에 비추어 딸아이에게 쥐와 바퀴벌레와 모기는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모기에 대한 이런 저항의식(?)을 갖고 있던 차에 어린이 서점 신간 코너에서 이 책을 발견했다. '모기와 황소' - 이 책에서는 모기를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을까? 틀림없이 어질디 어질 것 같은 소와 간사스럽고 영악할 것 같은 모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했다.

우리가 '아이들 그림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착한 모기와 귀여운 황소가 등장해서 이들에 대한 이미지를 확 바꾸어 버리는 그런 대단히 창의적인(?) 내용은 더더구나 아니다. 평소 어른들이 생각하는 모기와 황소의 모습을 그냥 잘 보여준다.

표지에 있는 황소의 얼굴모습은 굉장히 평온하다. 하루 일을 마치고 고단한 몸의 피로를 단잠으로 풀고 있다. 긴 속눈썹이 있는 눈꺼풀을 뜨면 까만 또록눈이 깜빡거릴 것만 같다. 그러나 코끝에서 뿜고 있는 모기에겐 시선이 옮겨가면 이 해질 녘의 고즈넉함이 여지없이 부서진다. 시골마을 외양간, 땀속 깊이에서 올라오는 메이스의 소 울음소리는 어느덧 회썹 먼지 속에서 서 있는 도화지에서 온 사람과 그 주위를 극성스럽게 맴돌고 있는 파리 모기의 현실로 돌아오고 만다.

이 책의 그림은 한마디로 참 좋다. 황소는 그야말로 느긋하고 작은 일에는 본체 만체 눈감아버리는... 그리고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도 꼬리 한번 휘두르고 마는 우직한 주인공이다.

그러나 모기는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계속 황소 주위를 맴돌며 악을 살살 올린다. '저놈을 어떻게 해서든지 꼭 잡아버려야지.' 마음을 다잡게 만든다.

전체적인 색감이 황토빛과 노을빛이 어우러져 1900년대 중엽 시골마을 해질 녘의 정취를 잘 표현해 놓고 있다. 원색에 지친 눈이 편안하게 설 수 있을 것 같다.

이억배 선생님의 그림책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 중 이 책의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든다.

글은 <어린이지> 1949년 5월호에 실렸다고 하는데 반세기 전에 쓰여졌던 이야기다. 글을 쓰신 현동엽 선생님은 소파 방정환의 수제자로 알려졌다고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읽고 들었을 이야기를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시 읽고 즐거워하니 참 감회가 새롭다. 너무나 좋고 잘된 그림책이 넘쳐나는 요즘에도 참 재미난데 어린이 문학작품이 굉장히 빈약했을 당시에는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문체가 지금 쓰는 것과는 달라 처음에는 선뜻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복한 그림책 '령리한 너구리' 처럼 몇 번 읽으면 내용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좀 길어서 작은 아이들은 좀 지겨워 할 수도 있겠으나 여섯 살 정도만 되어도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것 같다.

책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기 한 마리가 소에게 겁없이 까불다가 호되게 당한다는 이야기다. 앞에서 말한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이므로 책을 읽으면서 마음껏 즐기고 느끼기 바란다.

오늘밤 딸아이에게 이 책을 읽어주고 덮을 때도 처음 이 책을 서점에서 읽었을 때처럼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안산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아이들의 이야기

김 실 이 · 경기, 안산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01 그런 것도 몰라요?

경률(6세, 남)이가 2시간이 넘게 오전에 만든 섀글라스를 끼고 있다.

실이 샘 : "경률아, 섀글라스 부서질라. 선생님한테 맡겨라"

경률 : (하늘을 가르키며) "여기는 해가 쟁 쟁 해요"

실이 샘 : ... (할 말 없음)

02 얼큰해요!

놀이터에서 하늘반과 은하수반이 놀고 있다.

실이 샘 : (얼굴이 큰 은하수반 영찬이를 보고) "우리 영찬이 얼큰이네."

채혁(5세, 남) : "선생님, 영찬이가 매워요?"

03 착각

꽃밭에서 잡은 달팽이를 손바닥 위에 놓고, 한참만에 달팽이 살이 나오자,

정현(6세, 남) : (흥분해서) 선생님, 애가 (애기를) 낳았어요!

04 너~무 솔직해요

이야기나누기 시간, 한 친구가 넘어져 있고 다른 친구가 보고있는 그림을 보며,

희주 샘 : "이 친구가 넘어진 친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친구들 : "호-오 호-오", "일어나", "도와줄게"...

효정(5세, 여) : "메에-롱!"



05 버스 떠나갔어요

이야기 나누기 시간.

실이 샘 : "집에서 어떤 운동을 해 보았나요?"

해영(6세, 남), 친구들 : "저요, 저요"

실이 샘 : "찬홍이"

찬홍(6세, 남) : "자전거랑 달리기요"

실이 샘 : "해영이 말해보세요"

해영 : "아까는 말하고 싶었는데요, 음-음 지금은 안할 래요!"

실이 샘 : !!

06 고추(1)

이야기 나누기 시간.

실이 샘 : (후프하는 어린이 그림을 보여주며)

이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어디가 많이 움직일까요?

하늘(6세, 남) : 허리하고 음- 고추요!

실이 샘 : !!!

07 고추(2)

영주샘 : (부직포로 만든 야채 모형을 담으며) 어, 고추는 어디 갔지? 누구 빨간 고추 못 봤니?

고은(6세, 여) : (화장실에서 나오며, 씨익 웃음) "여기 있어요!" (고은이는 자기 팬티에서 고추를 쓱 꺼내는 것이었다)

영주샘 : 허-걱!

학교에 가는 소연이

전경숙·경기, 회원

학교에 가는 소연이, 학부형이 된 나.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이 졸업하는 것을 몇 년간 지켜보면서, 소연이가 졸업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꿈에 부풀어 있었다.

졸업여행 갈 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이런 것을 해 주어야지, 졸업식 때는 어떻게 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직접 접은 꽃과 소박한 선물을 담아서 소연이를 통해서 전해주고서 소연이에게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몸으로 느끼게 하고 싶기도 하고, 친구들에게도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해서 이제는 못 만날 친구들에게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게 해야지.

예비소집일에는 학교에 데리고 가서는 '소연아, 이 학교가 내가 앞으로 다닐 학교야' 하면서 함께 둘러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또 방도 따로 꾸며주어서 자기만의 공간을 갖게 하고 또 독립심도 키워주고 싶고, 학교 갈 때 쓸 물건들을 함께 고르고 싶고, 돼지저금통을 들고 은행에 가서 소연이 이름의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하고 절약하는 마음을 키워주고 싶고, 그리고 또..... 해주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하지만 미리 가졌던 마음과는 달리 늘 덩덤하게 지나간다.

오늘이 소연이 졸업식이었다. 마음먹었던 것과는 달리 아무 것도 준비도 하지 않고는 꽃을 접는 소연이에게, 소연아 그것 집에서 선생님 갖다드리면 좋겠다. 그 한마디에 경정대며 색종이를 접는 소연이를 보며 또 반성을 한다. 미리 무엇이랴도 사들 것을, 편지라도 써서 둘 것을..

늘 그런 식이다.

다른 엄마들도 그럴까?

눈썰매 타러 간다고 하면 방수복에 장화까지 며칠 전부터 사다 장만해 두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나는 겨우 도시락만 써서 장갑을 챙겼는지 목도리를 해야 되는지를 어린이집 보내서 다른 아이들의 옷차림을 보고 눈치챈다. 사실 조금 걱정된다. 소연이 지금 다니던 평동 어린이집은 엄마가 조금 소홀해도 용서가 되었었는데, 학교라는 공간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 당하고 할텐데 걱정이다. 그렇다고 끼고 살 수도 없고..

그런 덩덤한 엄마 덕에 소연이는 별 마음의 준비 없이 학교에 가게 생겼다. 하지만 많이 걱정되지는 않는다. 지가 알아서 하겠지... 여지껏처럼.

사실 진짜 걱정은 다른 것에 있다.

소연이 학교 들어갈 것을 일년 전에 걱정해서 학교 앞으로 이사 왔는데, 정작 방과후가 해결되지 않는다.

데리고 있자니 서로 갑갑할 테고, 학원 뽕뽕이 돌자니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그래서 공부방을 할까 고민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버렸다. 몇 년 전 학부형 선배들이 고민하던 것을 몇 년 후인 지금도 해결되지 않아서 나는 또 고민만 한다.

지금의 해답은 '데리고 있자' 인데 좋은 정답은 아닐 것 같다.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의 고민의 폭은 점점 넓어지고... 엄마는 아이와 함께 크다고 하더니, 나는 우리나라 보육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현실을 비판하고 고민하겠지?

몸으로 느끼면서 말이다.

이년동안 육아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로서 그만 쓸까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아이 키우다보면 엄마들끼리 맞아 맞아 할 때가 많은데, 되도록 그런 내용 담으려 했는데 함께 공감했는지 모르겠어요. 글이 너무 유치해서 홍보지나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육아일기 시작할 때는 소정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조금 남아서 몸도 마음도 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아이들 예쁘게 키우시고요.



그동안 소연이와 소정이, 두 지매를 키우면서 ?우리네 아이들?에 담백한 육아일기를 꼬박꼬박 써주셨던 전경숙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소연이가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시작했으면 하고요, 소정의의 남은 아토피도 말끔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경숙 회원님의 부부금술도 더 활짝 피시길 바라구요^^

다음 호부터는 주로미 회원님께서 두 아이를 키우시며 느끼시는 소중한 내용들을 담아 육아일기를 이어주실 예정입니다. 주로미 회원님은 서울 빙박어린이집에서 근무하셨구요, 지방에 잠시 계셨다가 둘째 출산하시면서 최근 서울로 다시 오셨습니다. 새로운 육아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전쟁과 아이들

이문경 · 본회 상임공동대표

영화 터미네이터2를 보면 미래의 살인로봇에게 쫓기던 여주인공이 잠시 지친 몸을 쉬며 꾸는 꿈을 통해 전쟁의 무서움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장면이 나온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미끄럼틀과 그네, 모래판 위로 밝은 햇살이 비추는 평화로운 정경.

재잘거리고, 웃고, 뽀뽀하고 엄마를 향해 말을 거는 아이들의 즐거운 모습.

그 순간 거대한 섬광이 지평선 끝에 나타나면서

순식간에 아이들과 엄마들은 행복한 놀이를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뿔뿔히 찢어지고 순식간에 형체도 없이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

핵전쟁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영화 속의 이 장면은 전쟁의 공포를 느낄 사이도 없이 지나가지만, 2003년 현재 우리는 매일 매일 다가오는 전쟁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의 취임과 9.11 테러이후 전세계는 계속적인 미국의 전쟁위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뉴욕무역센터에 행해진 테러공격의 충격은 폭력적 의사표현방식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테러와 폭력에 대한 지구시민들의 우려는 전세계적인 반테러연대를 이끌어냈고 미국은 이를 이용하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반테러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자행한 아프간에 대한 공격 역시 또 다른 폭력임이 드러났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공격 과정에서 발생한 무고한 인명의 희생에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부시 정권은 침공을 강행했고 결국 세계 최강국 미국의 군사력 앞에 아프간은 무릎을 꿇고 말았다. 사람들은 무역센터 테러에 대한 놀라움으로 아프간침공의 의미와 그곳에 가해진 폭력사태(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나 미국 내 아랍인들에게 행해진 테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미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잇따라 이라크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다시 한번 침략의 가능성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제 유엔의 반대와 세계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 백 만 명의 반전평화에 대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기정사실처럼 보인다.

테러의 희생자이자 세계 평화의 수호자라는 가면조차 벗어 던진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오로지 무력을 통해 힘을 행사하려는 강패에 다름 아니다.

전쟁과 폭력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불러올 비참한 결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갈등과 문제해결에 도움은커녕 원한과 복수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하지만 다양한 문화와 체제가 존재하는 한 갈등은 항상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힘의 우위를 전제로 자신만의 논리와 정의를 강요하는 방식으로선 결코 진정한 갈등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 진정한 화해는 나눔과 이해와 서로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쟁의 최대 희생자는 언제나 어린이들이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반전평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중학교 3학년이 7살 아이의 장난감을 뺏으면서 "너는 걷는 것이 서툴러서 장난감을 들고 다니다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이걸 내가 갖겠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운가?

지금 미국이 이라크와 북한에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 보육교사인 내가 맡고 있는 아이 중의 한 명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억지를 쓰는 중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고 장난감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만약 그 중학생이 우려하는 대로 7살 아이의 서툰 사용으로 장난감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도대체 7살 아이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대로 된 사용법이나 대체 장난감을 제공하는 것 등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보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렇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의 억지와 독선에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목소리와 함께 하는 것.

전쟁분위기를 기회로 보수언론이 만들어 내는 불안, 불신, 상호비방, 상대에 대한 왜곡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눈과 귀를 똑바로 열고 반전평화의 원칙을 기억하는 것.

내가 돌보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라크나 북한의 아이들과 살아가고 웃고 배우고 놀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보육교사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당신과 내가 평화의 씨앗을 심어야 하지 않겠는가?



[평화를 꿈꾸는 보육]

전쟁과 아이들

전쟁은 아이들의 생명과 꿈을 빼앗습니다. 전쟁 최대의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서정은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사람은 누구나 다른 나라나 민족으로부터의 위협이나 전쟁에 대한 공포 없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40여 개에 이르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각 전쟁마다 한해에 1천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대부분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현재 이라크 아동과 그 가족들은 지난 어떤 시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제재와 수년간 진행되었던 내?외의 전쟁 때문입니다.

이라크 전 인구의 79%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없이 살고 있으며 아동의 23%가 만성적 영양부족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전제 아기들의 절반은 전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영아사망률은 지난 12년 동안 두 배에 이르렀습니다. 이라크인구의 거의 절반은 14세 이하이며, 이들은 죽음, 굶주림, 질병과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후유증에 특별히 취약한 어린이들입니다.

현재, 이라크를 둘러싼 긴장은 최고조로 달렸습니다. 엄청난 재난과 피해를 몰고 올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이들에게 더욱 더 나쁜 상태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끔찍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기 겁난다구요? 이런 전쟁은 어른들의 일이니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구요? 골치 아픈 정치와 남의 나라 이야기라구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아이들에게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폭력과 착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성과 아이들에게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집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고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있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아이들임을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쟁은 아이들이 생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안전, 음식, 물 등을 빼앗아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전쟁과 폭력의 위협에 처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전쟁과 폭력의 위협 속에 있는 이라크 아이들에 대해 침묵하지 않도록 캠페인을 벌여야 합니다.

'잠시 멈춤'의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의 전쟁과 평화에 대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아이들의 생존이 위협 당할 것이며, 전쟁으로 인해 아무 죄도 없는 수많은 순수한 생명들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부당한 승급연기

이인희 · 인천, 회원

다음은 이인희 회원님이 지난 1월 인천 남구청 '구청에 바란다'에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을 올림으로 인하여, 저와 관련된 선량한 시민들이(위탁관련)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글을 올립니다.

'97년에 있었던 일은 당시 구청장에게 물으십시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아, 그때 자료요? 그건 5년이 지나면 자료를 폐기하므로,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구청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구정을 살피셔도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공무원들이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책임회피를 일삼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03년 1월 9일에 어린이집 위탁 신청 때문에 남구청에 갔을 때, 저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심한 모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98년부터 일했다는 담당 공무원은, '97년 일을 설명해도, 뭘 모른다고 코웃음치며, 상사로 보이는 남자 직원과 제 말은 들으려도 하지 않으며, 비웃었습니다. (자기들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며...)

만약 이들이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원인의 설명을 끝까지 들어 주고, 같은 내용을 구마다 해석을 다르게 한다면, 해당 구에 연락을 취해 보고, 자기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당시 상황을 시에 알아보고, 행동을 취했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 최소한 민원인에게 기본적인 예우는 갖추고 대해야 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취급하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인양 언행을 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냐요?

다음과 같이 제가 당한 일을 읽어보시고, 구청장님께서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97년 2월에 받았어야 할 1급 승급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인천광역시에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승급교육기관 지정을 미뤘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98년 5월에야 기다리던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97년 당시, 해당 구청인 부평구청에 승급 교육이 늦어지면 그만큼 1급 승급도 늦어지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었고, 구의 답변은 경력이 중요하므로 승급교육과는 상관없다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원 원장님이 직접 통화했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지난 1월 9일, 남구 소재 한울타리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위탁 신청했다가 원장 자격이 6개월이 부족하다 하여 접수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간 못 먹고, 못 자고 준비해 간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경력이 9년이라도 무조건 승급교육을 받은 시점이 1급이 되므로 늦어진 1년 6개월만큼 1급 승급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평구청에 다시 문의하자, 경력이 되므로 시설장 자격이 된다고 답변했다가, 관련 문구를 제시하니, 승급교육을 받은 시점이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97년 당시 답변을 상기시키자, 담당자가 바뀌었고, 당시 서류는 5년이 지나 폐기했으므로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남구청 담당 직원에게 '97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인천에서 승급교육기관을 지정하지 못했으므로 승급교육과는 상관없이 1급자격이 된다고 했다는 말을 강조해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웃음치며, 자기가 알아서 교육 받아야지, 시에서 무슨 상관이나며, 이런 일은 지금까지 처음이라며, 상사로 보이는 직원과 함께 빈정거렸습니다.

인천지역에서 승급교육기관을 지정하지 못했으니 그 책임은 시에서 져야 하며, 그로 인한 피해를 보육교사들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는 교사들이 많아서이지, 그 피해자는 무척 많다고 봅니다.

일 하고도 일 한만큼 인정받지 못 한다면, 그것도 시에서 한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당연히 시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조차 해석이 다르고, 세월이 지났다고 약속한 내용을 없던 일처럼 처리하는 것은 정말 부당합니다.

저는 9년 이상 현장에서 일하면서, '인천보육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복지부 보육정책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한국보육교사회 정책위원으로서, 아이들을 돌보는 물론,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한 댓가로, 좌절감과 모멸감만 안겨줬습니다.

도대체 지자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합니까?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교육조차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보육교사라는 이유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들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하며 아름다운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우리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지요?

보육교사의 위치가 이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즐겁게 아이들을 돌 볼 수 있으며, 아이들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이유있는 항의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다리겠습니다!

- 늘 연구하고 실천하는 보육교사 이인희 올림 -

상담실 Q&A

이 코너는 한국보육교사회로 들어온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보육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는 것이 힘! 자기 권리는 스스로 찾읍시다.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실을 이용해주세요.

Q

저는 법인 어린이집에서 2002년 1월14일부터 2003년 1월18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않고 일주일 전에 퇴직을 했는데 24일에 급여통장으로 47만원 가량이 입금
되었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교사들은 수당과 호도휴가비로 100%를 받았습니.
호도휴가비 및 정근수당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기본급에서만 계산을 해서 준 것 같은데 정당한
건지요? 또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A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었다면 월 급여(수당, 상여금 등) 총액에서 근무 일수만큼 급
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 정기상여금이 나오는 달이라면, 정기 상여금이 몇 달에 한 번인지에
따라 그만큼을 나누어 다시 근무 일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3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 매 60만원이라면 $[(60 \div 3 - 20) \div 30] \times 18$ 을 받으시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근무한지 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지급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어린이집에 근무
하는 사람이 총 5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취사원 등 다른 직원 포함).

퇴직금은 그만둔 달로부터 3개월의 급여를 전부 더한 후 3으로 나눠 평균을 낸 금액에 근무 연수
를 곱하면 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2002년 11월, 12월, 2003년 1월 급여 합계 $\div 3$) $\times 1$ (년)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 지급요청을 하시고 만약 지급이 안될 경우에는 노동부에 체불
임금지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이렇게 해결하세요.

1) 증거서류의 확보

- 월급봉투, 임금(퇴직금) 지급명세서, 지불각서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서면으로 확보해 둔다.

2) 적극적으로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 고발한다.

- 관할 노동지방사무소에 진정서, 고소(임금체불 된 당사자가 할 수 있다.)· 고
발장(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다.)을 접수할 수 있다. 진정은 위법한
체불사건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고, 고소· 고발은 위법한 내용에 대해 처벌
을 해달라는 의미이다.

3) 민사청구 절차

- 진정, 고소· 고발하여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을 내렸는데도 사용자가(임금
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이)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는 사용자를 검찰
로 송치한다. 이때 노동자는 민사소송에 필요한 체불임금 확인서와 무공탁가
압류 협조요청서를 발급 받아 지방법원에 민사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처리과정

진정서 접수 → 양자소환 사건조사 → 지급명령 → 임금이 정상 지급되면 종료
임금이 정상 지급되지 않
면 경찰송치
(근로감독관이 결정)

→ 경찰송치 시 벌금형 등 형사처벌

▶ 30일 이내 처리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30일 연장 가능

자료참고 >>

"법을 알면 권리가 보인다"

서울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출판

봄날의 나른함, 주말에 가볍게 만들어 먹는 달걀밥으로 깨버리자!

김휘경 · 본회 정보간사

이번 호부터 아이들과의 일상에 물어 시는 「우리네 아이들」 식구들을 위해 김휘경 간사가 새로운 세상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첫 만남으로 고소하고 맛있는 달걀밥을 소개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마냥 쏟아지는 하품을 주체하기 힘들고 늘어지는 몸을 추스르기 어려워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바쁘게, 즐겁게, 때론 힘겹게 생활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야 늘어지고 싶어도 늘어질 수 없는 봄이겠지요.

봄이 오면 아무래도 우리의 입도 좀 새로운 걸 원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매일 봄나물을 다듬어 요리하기엔 좀 번거롭고...

아주 간단하지만 나름대로 입맛 들게 하고, 또 기분도 가뿐하게 하는 달걀밥을 소개합니다. 일요일 점심, 조금은 나른한 시간에 찬밥에 라면 말아먹는 대신 파릇한 파셀리 한 귀퉁이에 꽂아두고 과일샐러드 약간 얹어놓으면 근사한 정식이 된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먹어도 맛있지요~

[재료]

밥, 달걀, 소금, 참기름, 깨소금, 너무 단출하죠?



[이렇게 만들어요]



1. 밥을 퍼서 소금, 깨소금, 참기름을 넣고 잘 비벼줍니다.



2. 깨소금 비빔밥을 동그랗게 빚은 후 납작하게 눌러 준다.



3. 달걀 1개를 잘 풀어 소금을 넣고 동글납작하게 된 밥을 달걀물에 적셔서 프라이팬에 지진다.

4. 앞뒤로 다 지진 후 식혀서 도시락에 담거나 뜨거울 때 접시에 담아 낸다.

[주의하세요]

☆ 프라이팬에 몇 개씩만 넣어서 할 때는 중불로 하고 프라이팬에 가득 넣어서 할 때는 약불로 하세요. 많이 놓는 동안 먼저 놓은 것이 탈 수도 있습니다.

자료 | 꼬마요리사 <http://san.kerico.or.kr/~cyber/cook/egggrice.html>

[요리 팁]

음식에도 궁합이...

○ 불고기와 들깨잎

고기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며 칼슘과 비타민 A가 매우 적고 비타민 C는 전혀 없어 칼슘과 철분, 비타민 A, C가 많으며 향미 또한 좋은 들깨잎과 함께 먹으면 영양의 균형을 이루고 엽록소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엽록소와 비타민 C가 풍부한 들깨잎은 암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 스테이크와 파인애플

우리나라 전통적인 연육제인 배와 무는 단백질과 지방분해 효소가 있어 고기와 함께 재어 두면 연육효과가 크다. 외국의 연육제를 보면 무화과, 파파이아, 파인애플이 있는데, 배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하다. 파인애플(브로멜린)은 미량을 고기표면에 살포해도 연육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 굴과 려몬

굴은 수분이 80%, 단백질 10%, 지방 5%, 글리코젠 5%에 무기질과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 있어 새균이 번식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뿐만 아니라 굴에는 자가 효소가 많이 들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성분의 변화를 일으켜 탄력이 떨어져 축 처지게 된다.

○ 우거지와 선지국

철분은 동물의 간, 심장, 콩팥, 살코기, 콩, 달걀, 미역, 김, 톳, 조개, 녹색 채소 등에 있으나 으뜸인 것은 혈액이기 때문에 선지국이야말로 빈혈인 사람에게 가장 추천되는 식품이다. 하지만 말

이 섭취하게 되면 변비 증세를 보이는 결점이 있어 선지국을 끓일 때 우거지와 무, 콩나물 등 채소를 많이 넣으면 카로틴과 엽록소가 있어 조혈 작용을 촉진하며 세포 부활 작용, 지혈 작용, 말초 혈관 확장 작용, 항 알레르기 작용 등 중요한 생리 작용을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다.

○ 홍차와 꿀

홍차 성분 중의 떫은맛 성분인 탄닌이 꿀 중의 철분과 결합해서 인체가 흡수 할 수 없는 탄닌산 철로 변하기 때문에 영양손실을 초래한다.

○ 두부와 미역

95%의 소화율과 어떤 조미료와도 잘 어울리는 두부는 사포닌 성분이 있어 지나치게 섭취하면 체내 요오드가 빠져 나온다.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곁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딸기와 우유

과일 중에 비타민 C가 가장 많은 딸기는 새콤한 맛을 내는 사과산, 구연산과 같은 유기산 때문에 신선미를 더해 준다. 비타민 C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조절하는 부신피질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므로 체력을 증진시키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다. 설탕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 B1과 유기산의 소모를 더하기 때문에 꿀, 우유, 미역은 요거트 등과 함께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 조개탕과 썩갓

아미노산(히스티딘, 라이신 등)이 많고 지방이 적은 조개는 글리코겐도 풍부해서 영양 식품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질의 단백질 공급을 해야 하는 간장 질환과 담석증 환자에게는 조개탕이 아주 좋은 식품이다. 썩갓은 칼슘이 많고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며 엽록소 또한 풍부해서 적혈구 형성에 도움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 효과가 있어 조개탕에 썩갓을 곁들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 혈액형에 좋은 음식들

○형 - 고기를 많이 먹으면 좋아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좋아요!! ○형의 신체조직은 원래부터 유제품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끔 되어있으므로 가급적 우유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유제품의 섭취가 꼭 필요한 성장기의 어린이나 임산부는 반드시 칼슘보조제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두유는 고단백 식품으로 ○형이 먹어도 좋을 대체식품입니다. 주스를 마실 때는 되도록 파인애플 주스를 선택하

세요. 살찌는 원인이 되는 부종(몸이 붓는 현상)과 복부 팽만감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요.

A형 - 채소가 좋아요!!

각종 미네랄과 효소, 산화 방지제를 제공하는 채소는 A형 다이어트의 필수 식품입니다. 채소 중에서도 A형에게 특히 좋은 것은 브로콜리와 마늘, 양파, 그리고 두부입니다. 채소를 먹을 때는 채소의 이점을 살리기 위하여 가능한 한 자연상태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고추, 감자, 고구마, 양배추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A형의 민감한 위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식품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파인애플은 소화작용을 키우며 키위는 위암 예방에 효과가 탁월한 비타민C를 제공하므로 좋습니다.

B형 - 과일이 좋아요!!

닭고기, 옥수수과 메밀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살찌는 주된 요인으로 신진대사를 둔화시키고 인슐린 분비의 혼란과 부종, 피로감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B형에게는 과일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파인애플에 들어가는 브로멜린 효소는 소화작용을 돕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몸을 덥게 하려면 생강차를, 소화를 진정시키려면 시원한 향의 페퍼민트 차를 마시도록 하세요. 몸과 마음이 진정되는 산뜻함까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AB형 - 콩종류가 좋아요!!

곡류나 밀가루 음식도 AB형에게는 잘 맞는 편입니다. 하지만, 메밀과 옥수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항암 효과 뛰어난 건강식품, 두부는 AB형에게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파인애플을 제외한 열대과일은 피해야 하며, 매일아침 레몬 반개를 짜낸 즙을 더운물에 타서 한 잔씩 마시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가 즐거울 것입니다. 밤새 체내에 축적된 점액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고, 배설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포도주는 심혈관에 좋은 음료로 매일 한 잔의 적포도주를 마시면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관련 홈페이지가 '곧' 열립니다.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우리네 아이들"

icarenet.kdta.or.kr

한국보육교사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 사업(이하 '실무자 훈련사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원사업 홈페이지 "우리네 아이들"에 오시면 기분 좋은 일이 생깁니다.

- 포괄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소개
- 실무자 훈련사업에 대한 개요와 내용, 지역별 구체적 일정 소개
- 각 지역의 보육, 복지기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알찬 자원정보 제공
- 사례나눔방, 자원나눔방을 통한 생생한 지역 보육/복지 사례·자원의 교류 및 공유

4월에 대문을 활짝 열 계획입니다.

많이들 찾아오셔서 좋은 덕담 한마디씩 던져주세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

- 기 간 : 2003년 5월 - 10월(구체적 일정/장소는 추후 공고)
- 지 역 :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총 7개 지역
- 대 상 : 보육시설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보육담당 공무원, 지역 복지·보건기관 실무자
- 모집인원 : 입금신청순 30명
- 참가비 : 15,000원(1박2일/3식 제공)

말, 언어발달 장애아동 치료교육 프로그램

시민, 장애인이 함께 하는 민간공동체 한국아르쉬(L' ARCHE)에서는 한국아동발달연구소(KDCI)와 함께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과 문제의 특성에 따라 개별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말, 언어발달 장애아동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대상 : 언어발달지체, 조음장애, 구개파열, 정신지체, 청각장애, 실어증, 학습장애, 정서장애, 뇌성마비, 말더듬 및 자폐증으로 인한 언어장애 아동
신청기간 : 2003년 3월 31일까지(오전 10시~ 오후 4시 접수)
신청문의 : (02)932-2200, 3391-9200

유아독서교육 강습회 - 문학적 접근에 의한 통합적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
동화책을 통한 창의적 언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교사 강습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본 강습회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책에 관심 가지기' 항목을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접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03년 3월 29일(토) 오후 2시 ~ 오후 5시 30분
장소 : CBS 사회복지교육원
강사 : 유아독서교육연구소 소장 권옥경
수강료 : 25,000원(교재비 포함), 온라인 사전 행사 신청시 10% 할인
내용 : 유아 독서교육의 의의 및 중요성 / 효율적인 독서교육의 단계별 지도법
문의 : (02)588-0115 kok@kokbook.com

봄소풍 및 재롱잔치를 위한 유아올동 연수

일시 : 2002년 4월 13일(토) 15:00 ~ 17:00
장소 : 광주여성발전센터(상무지구내)
대상 : 보육교사 300명
주제 : 봄소풍 및 재롱잔치를 위한 유아 올동
강사 : 안영혜(현, 한국유아올동교육협회 사무총장)
교육내용 : 우리엄마 / 참새 / 정글의 왕 레오 / 월드 컵 체조 / 어린이 물카 등 17곡 노래와 올동
교육비 : 10,000원(테일 포함)
입금계좌 : 광주은행 420-107-018559
농협 246-01-006951 예금주 김정음
교육신청 : 입금 후 전화 접수 → 광주보육정보센터
문의 : 광주보육정보센터 (062)973-7010

[단기과정] 요슬풍선 교육 안내

교육주제 : 요슬풍선 지도자 과정
교육시간 : 2002. 5.16(목) ~ 6. 19(6주) 매주 수요일 16:30 ~ 18:30
* 5.15일은 스승의날인 관계로 첫주만 5.16일(목)에 강의합니다.
장소 : 광주보육정보센터 회의실
강사 : 김상룡(한국풍선아트장식가협회 회장)
교육비 : 30,000원(전화 신청후 입금)
교육인원 : 50명(신청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폐강됩니다.)
신청 및 문의 : 광주보육정보센터 (062)973-7010
계좌번호 : 광주은행 420-107-018559 예금주 김정음

유아체육 2급 지도자 과정

기간 : 2003. 3. 28(금)~6월 27일(금) 오후 7시 ~ 오후 9시

강사 : 허진 (한국 유아체육교육진흥원 전문위원)

대상 : 시설장 및 보육교사,

보육관련 종사자 및 일반인

장소 : 안산보육정보센터 3층 강당

교육비 : 1인당 150,000원

접수 : 3월26일까지 전화접수

TEL:031)410-5394 (선착순25명)

• 전화접수 후 3일 이내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 교육접수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됩니다.

입금계좌 : 농협 211063-51-059084

예금주 : 안산보육정보

• 교육비를 직접 센터에서 받지 않으니 반드시 교육비는 통장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바람직한 통합 교육의 요소와 교사역할

기간 : 2003. 3. 25(화) 1회 저녁 7시 ~ 9시

내용 :

- 1) 통합 교육의 전개
- 2) 통합 교육 사례 I, II
- 3) 장애아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강사 : 김수진 (부천시보육정보센터 순화자문특수교사)

대상 : 시설장 및 보육교사, 보육관련 종사자 및 일반인

장소 : 안산시보육정보센터 3층 강당

교육비 : 1인당 10,000원

교육접수 : 3월 22일까지 전화접수

☎ 410-5394 (선착순 40명)

• 전화접수 후 3일 이내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 교육접수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됩니다.

입금계좌 : 농협 211063-51-059084

예금주 : 안산보육정보

• 교육비를 직접 센터에서 받지 않으니 반드시 교육비는 통장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옛 아이들 놀이 노래 이야기 학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뿌리내릴 놀이꾼, 노래꾼, 이야기꾼으로 가는 길라잡이-

이 프로그램은 방학때마다 한겨레에서 강의해 오고 계신 편혜문 선생님이 지인들과 함께 충주 부근 폐교를 장기 임대해 선재학교와 부설 옛 아이들 놀이노래이야기 연구실을 마련해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집중도와 연속성을 높이고자 새롭게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단발적인 강의가 맛보기 수준에서 끝나는 안타까움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총4과정을 약 6개월동안 주말 프로그램으로 100여 시간에 걸쳐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다.

정원 : 25명

장소 : 충주 선재학교(동서울터미널에서 1시간반 소요, 충주가기 전 용포 하차, 숙박은 선재학교 뒤 황토 한옥, 043-855-0408)

신청마감 : 2003년 04월 10일

담당강사 : 편혜문(옛 아이들 놀이노래이야기 연구실 실장,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강사, 창작과비평사 좋은 어린이책 공모 대상 수상,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과 전주세계소리축제 가족놀이마당과 교사 워크숍 진행, <가자가자 감나무, 동무동무 씨동무> 창작과비평사, <옛 아이들의 노래와 놀이 읽기> 박이정 저자)

초청강사 :

임재해(안동대학 민속학과 교수)-「마을공동체 안에서 본 옛이야기의 교육적 의미와 기능」
방기연(그레 심리상담연구소 소장)-「놀이가 아이들 심성과 성장에 끼치는 영향과 기능」
유지선(선재학교 교장)-「뚜렷한 주제는 있지만 일정한 표가 없는 자유캠프 사례발표」

교육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교밖, 대안학교 교사와 관심 있는 학부모

(수료자에게는 옛 아이들 놀이노래이야기 연구실과 한겨레문화센터가 공동으로 수료증 발급)

▶ 강의일정과 시간: 총100시간

1과정. 옛 아이들 놀이(4월11일~13일)-25시간

2과정. 옛 아이들 노래(6월6일~8일)-25시간

3과정. 옛 이야기, 수수께끼, 옛말(8월15일~17일)-25시간

4과정. 놀이 노래 옛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었던 경험과 사례 나누기(10월3일~5일)-25시간

주관 : 선재학교 옛 아이들 놀이 노래 이야기 연구실, 한겨레문화센터 공동주관

상세문의 : 편혜문 선생님

hm1969@hanmail.net 011-9591-6906

위치문의 : 선재학교 043)855-0408, 8319

문의 및 접수 : 02)3272-7575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

개회기간 : 2003.4.11(금)~18(금)

상영관 :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 하이퍼텍 나다 /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공연장

주최 : (사)여성문화예술기획 서울여성영화제 집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한국영화회고전 부문 공동주최)

후원 :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캐나다대사관, 독일문화원, 호한재단, 프랑스문화원, 멕시코대사관

문의 : (02)588-5355 publicity@wffs.or.kr

상영 프로그램 : 7개 부문 19개국 120여편

- 새로운 물결(37편)
- 아시아영화특별전:필리핀여성영화의 힘(10편)
- 감독특별전:레아 폴(6편)
- 한국영화회고전: 천의 얼굴의 요부, 도금봉(4편)
- 닥 포커스: 실험영화(25편)
- 여성영상공동체(15편)
- 아시아단편경선(18편)
- 특별상영(3편)

중앙소식

- 1월 4일 교육위원회 모임이 갈릴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제7차 한국보육교사회 수련회에서 발표할 교육위보고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 1월 4일 제3차 총준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2003년 사업 방향과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1월 6일 조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인터넷 채팅을 이용한 사이버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내용은 이후 우리 회의 조직전환 형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1월 7-8일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에 이윤경 공동대표와 이선주 교육부장이 대의원 자격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2003년 여연의 중점사업으로 성인지 예산 확보, 반전평화운동, 성매매방지법 제정이 선정되었습니다.
- 1월 11일 교육위원회 모임이 갈릴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제7차 한국보육교사회 수련회에서 발표할 교육위 보고내용을 검토하였으며, 2003년 교육위원회 사업검토, 보육교사 현장연구모임의 운영계획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1월 11일 제4차 총준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2003년 총회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1월 16일 복지부 보육과에서 보육과 예산담당 사무관과 본회 이윤경 공동대표, 원명순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회장과 2003년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회는 급여

체계를 총액임금제로 전환하기보다는 2002년 보수체계처럼 본봉과 제 수당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보육교사들이 자신의 월급내역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급여현실화를 위한 인상을 할 때도 보육교사의 직급이나 근무조건, 역할에 따른 제 수당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육과는 상여금 지급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의 급여차이로 보육교사들이 월별 수입, 지출계획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설에서도 복잡한 수당체계를 계산하는 일이 업무과중으로 연결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년 총급여를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급여지급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육과는 이번 급여체계를 변경하면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월급체계와 보육시설 종사자 급여체계를 분리하여 이후 보육교사들의 임금수준 현실화를 위해 노력을 하여 5-6년 안에 병설유치원교사 월급수준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월 17일 대통령직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간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본회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차등보육료제 조기 도입과 방과후 보육종합대책 마련, 보육시설 인력재배치와 증원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1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발전기회단에서 준비한 발전방안 보고와 관련단체 정책간담회를 겸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본회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고서 내용

에 대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시간의 부족으로 이후 단체별로 의견수렴을 서면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회는 여연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보편성 획득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해제가정이나 빈곤가정 아동 등 일부아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1월 18일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에서 보육정책관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회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1월 20일 집행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준비상황 점검을 비롯한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1월 22일 10시 30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을 위한 첫 연구진모임을 가졌습니다. 연구진으로는 오경숙(면일), 남미영(새터), 서현경(안산근로복지공단), 조인숙(부천근로복지공단) 원장님께서 참여하십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앞으로의 모임내용과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1월 25-26일 제7차 정기총회 및 수련회가 부천의 복사골 연수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조직전환에 대한 지부별 논의와 바람직한 보육 철학으로서 돌봄에 대한 교육 등이 첫날 진행되었으며 둘째날은 제7차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1월 25-26일 제7차 정기총회 및 수련회가 부산의 김명선 지부장님이 새로운 공동대표로 선출되었으며 인천의 박은아 지부장, 서울의 김진숙 지부장, 광주전남의 최미라 지부장, 대구의 홍미숙 지부장, 경기의 지연 지부장, 부산의 김명선 지부장님이 신임 지부

장으로 인준받았습니다. 또한 이선주 전 교육부장이 신임 사무국장으로 인준받았습니다.

- 1월 28일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에서 보육관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육비용 지원방식과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회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문제가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을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 1월 28일 사무국 공간활용을 위한 대대적인 청소작업이 있었습니다.
- 1월 2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기초사항들을 점검하였습니다.
- 2월 3일 여연 복지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복지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보고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2월 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구진 2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연구진에 김성희(반포종합청사) 원장님께서 새로 결합하셨습니다. 이날은 각 시설에서 진행하였던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2월 4일-9일 이윤경 공동대표와 이선주 사무국장, 이경녀 조직부장이 일본의 오사카와 동경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002년에 개최된 한일보육교류 10주년 기념식에 대한 평가회의와 2003년 한일보육교류 연수 방향 등에 논의하였습니다.
- 2월 10일 교육위원회 모임이 갈릴리 교회에

서 있었습니다. 2003년 교육위원회 연구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부 순회토론회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 2월 11일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보육관련 간담회가 민주노동당 당사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노당 여성위원장 및 간사와 전교조 유치원위원장, 본회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민노당의 대선공약 중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후 민노당 여성당원들까지 참석하는 간담회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2월 12일 여연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이사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3·8여성대회에 대한 논의와 여연 중점사업에 대한 점검 및 활동 공유가 진행되었습니다.
- 2월 12일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 자리찾기 1차모임이 있었습니다.
- 2월 1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팀 2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갈 내용들을 점검하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2월 14일 방과후 보육관련하여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여연, 이태수교수, 본회(이윤경 공동대표)가 만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씩씩어린이집에서 확대간부훈련 및 연석회의가 1박2일로 있었습니다. 각 지부의 새로운 집행부와 운영위원들이 모여 중앙사업과 지부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 공유 및 지부의 조직전환 논의계획 세우기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 날 일꾼으로서의 역할과 보람에 대해 강의해 주신 전국여성노조 최상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2월 16일 방과후보육 관련하여 2차로 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여연, 본회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가 만나 구체적인 법제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 2월 17일 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과 본회 이윤경 공동대표가 만나 보육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2월 18일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에서 아동복지정책과 방과후보육대책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회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과후보육을 보다 포괄적인 아동복지정책의 하나로 확대하여 지역아동센터(가칭)로 개편·정리하자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당분간 보육시설에서 운영중인 방과후 반은 그대로 두되 점차적으로 시설과 서비스내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아동복지과 중심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2월 18일 2시 여성대회준비회의가 청산교육장에서 있었습니다. 이강선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2월 19일 어깨동무어린이집에서 "보육환경과 영유아의 건강"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강의해 주신 건축가 황영현 선생님과 새터 어린이집의 김정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2월 20일 1시 청산교육장에서 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선

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2월 20일 서울시보육정보센터에서 상담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회 이윤경 공동대표가 상담전문위원자격으로 참석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상담실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2월 21일 서울시 보육위원회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보육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2003년도 서울시 보육료와 보육교사교육원 교육비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있었습니다.
- 2월 21일 10시30분 반전평화 여성행동을 위한 긴급회의가 평화여성회에서 있었습니다. 여성연합, 군사주의반대여성평화네트워크,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여성공동체, 여전연합, 여성해방연대, 전여대협, 여신협, 평화여성회가 참석하였고 우리 회에서는 이강선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2월 24일 여연 복지위 가족분과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와 유정은 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성운동이 여성복지와 여성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 2월 24일 정책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보육교사 권익과 관련된 상담사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 2월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한 2003년 지원사업 선정 단체 지원금 전달식에 이윤경 공동대표와 황미혜 프로젝트 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 2월 27일 11시30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라크공격 반대, 한국군 파병 반대, 한반

도 전쟁위협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에서는 이강선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시민참여시대의 시민운동, 회원사업에서 희망찾기 교육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에서는 이강선주 사무국장과 김희경 정보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지부 소식

서울지부

- 1월 15일 서울지부 확대 운영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일해 온 운영위원들과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들, 부서 일을 책임질 집행부장들이 함께 모여 지부의 한 해 사업방향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 2월 6일 서울지부 홍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의 홍보부 계획과 소식지의 흐름을 잡는 자리였습니다.
- 2월 7일 서울지부 집행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발로 뛰는 서울지부 한해 사업을 책임지는 조직부, 교육부, 홍보부의 부장과 사무국장님, 고문 운영위원이 모여 부서사업 계획을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 2월 14일 서울지부 신입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 회의를 통해 서울지부 한 해 사업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 2월 19일 한국 보육교사회 교육센터 교육강좌 "보육환경과 영유아의 건강" 강좌가 있었습니다. 서울지부의 김정은 회원의 건강관리 교육과 리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아동의 건강관리 정

보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 2월 27일 새해 들어 처음 갖는 서울지부 월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운 회원들도 환영하고, 한해 동안 진행될 지부 활동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2월 28일 3월 소식지 기획과 부서 활동 계획을 위한 홍보부 모임이 있습니다.
- 3월 7일 서울지부 집행부 회의가 썩썩이 어린이집에서 있습니다.

인천지부

- 1월 29일 인천지부 사무실이 이전했습니다. 부평5동에 있고요, 새싹들의 땅 어린이집 사무실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2월 22일 첫 회원의 날을 했습니다. 비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13 명의 반가운 얼굴들이 모였습니다.
- 소모임이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영아교육 소모임, 율동 소모임, 놀잇감 연구모임, 박물관 소모임, 미술치료 소모임, 마을모임입니다.
- 3월 8일 오후 2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3.8 여성대회 행사를 하였습니다. 인천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치렀습니다.
- 3월 회원의 날에 조선경 선생님이 '돌봄'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3월 15일(토) 오후 5시 새싹들의 방입니다.

광주전남지부

- 시여성발전기금 프로젝트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큰 재정은 아니지만 울 지부의 힘과 지혜를 광주시민과 더 많은 보육교사들과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 3·8 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자 경기대회에 참여합니다. 우리 지부의 깃발과 우리의 주장이 담긴 노란 풍선을 들고.

부산지부

- 드디어 부산지부 사무실 반상근자가 생겼습니다. 부산지부는 2003년 1월 정기총회에서 사무실 반상근자를 두기로 회원 모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사람을 구하던 중, 드디어 보육교사회 부산지부의 막강한 에너지가 될 사람을 구했습니다. 박연진 선생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68년 원숭이띠이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과정을 수료했고, 현재는 부산대 독서지도사 교육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부의 창창한 앞날이 예견되지요? 박연진 선생님이 보육교사회 식구가 된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난 2월 24일 저녁 8시, 포구나무 어린이집에서 (선배·일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0년차 이상 선배님과 일꾼들의 의미 있는 만남이 '각동의 해'가 될 부산지부의 2003년에 든든한 받침돌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부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축하합니다

- 서울지부 이보경 선생님께서 3월부터 새로운 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십니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매일을 만들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 서울지부 장명선 선생님이 3월 23일(일) 1시 안양 왕궁예식장 2층 난초실에서 결혼하십니다. 행복하세요.
- 수원지부 평동어린이집의 정연화 선생님이 4월 13일에 상주에서 결혼한대요. 평동어린이집에 계시는 미처 시집 못가신 선생님들이 부케 받고 바로 바로 시집가셨으면 하네요.***
- 2월 4일 인천의 고정미 선생님이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황종석, 예명은 예뻐요. 큰 딸 예술이를 닮아 건강하답니다. 축하합니다. 아이 낳았다는 소식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둘이라는군요, 서울의 최현선생님의 아들 둘 전치가 2월 16일에 있었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 돌잔치소식이 또 있네요. 인천지부 손수정 선생님이 아들 김동기의 돌잔치를 2월 15일에 했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 경기지부 지부장이신 지연 선생님께서 집을 사셨대요. 수원역 부근에 무려 26평짜리 집을 장만했습니다. 참고로 지연샘은 집이 2채 있답니다. 아직 전세도 변변한 게 없으신 선생님들 부럽죠!(자세한 내용은 경기지부 회원들에게 물어보세요)
- 경기지부 전경숙 선생님의 큰딸, 강영신 선생님의 둘째 아들, 김실이 선생님의 큰 아들, 박부자 선생님의 큰 아들이 모두 입학했습니다. 친구 많이 사귀고 스스로 크게 훌륭한(?) 어린이가 되어다오.

환영합니다

- 김휘경 선생님이 2003년 3월부터 한국보육

교사회 정보·홍보간사로 반상근을 하십니다. 김휘경 선생님은 2001년부터 한국보육교사회 자원활동가로 홈페이지 기사검색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는 2월 서울신학대학 보육학과를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대학원에 입학합니다. 힘찬 활동을 기대합니다.

- 황미혜 선생님께서 2003년 한국보육교사회 비상근 간사로 활동하십니다. 황미혜선생님은 공동모금회 후원의 [보육시설의 사회복지 기능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프로젝트와 우리네아이를 편집부를 담당하십니다.
- 조선경 선생님께서 2003년부터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십니다. 92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교육연구부로 활동하셨으며, 현재 이웃사랑위원장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 서울의 이성봉, 충남의 김은숙, 신선주, 조선영, 김지혜, 경기의 윤진숙, 박양숙, 광주전남의 김진희, 최혜영, 부산의 강복자, 김혜은 선생님께서 회원가입을 하셨습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서로 힘을 주고 받으며 우리 회 활동 열심히 하는 우량회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새 출발에 박수를...

- 서은희 선생님이 안양보육정보센터의 일을 접고 3월부터 1년간 뉴질랜드로 가십니다. 1년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무사히 돌아오세요.
- 14년간 보육교사로 지내온 서울의 김숙자 선생님이 2월 28일로 보육교사를 그만 두실

니다. 오랜 동안 회 활동을 하시면서 늘 든든한 언니로 우리를 지켜주신 숙자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활동에서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 우리의 선배 최선희 선생님이 참교육학부모 연대 사무국장이 되셨습니다. 이로써 보육교사와 학부모들과의 단단한 연대를 기대해도 되겠지요? 파이팅입니다.
- 인천의 나래 어린이집이 새단장을 하였습니다. 인천의 민주노총 건물에 어린이집을 마련하고 새로운 선생님도 맞이하였답니다. 나래 어린이집이 지역의 좋은 어린이집으로 우뚝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 인천지부 이경미, 이상미 선생님이 "새싹들의 방"으로, 박은정 선생님이 "새싹둥이" 어린이집으로 복귀하셨습니다.
- 인천지부 최은하 선생님이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 경기지부 윤금주 선생님이 이번에 수원여자 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입학했어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건강하십시오.
- 5년 전 교회 재건축 관계로 문을 닫았던 '발산 우리동네아이동지'가 오는 3월 10일 드디어 재개원을 합니다. '우리동네어린이집'이라는 새 이름을 갖고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김경아 선생님이 새로 근무하십니다.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앓~싸!!
- 광주전남지부 사무실이 발산우리동네어린이집 한쪽을 얻어 이전했습니다. 새 주소는 광주 서구 양3동 368-1 발산교회 1층이구요, 새 전화번호는 062-369-6740입니다.
- 부산지부 박은영, 김정현 선생님이 지난 2월부터 공동육아 생생어린이집 방과후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선생님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 방과후 어린이집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 부산 툼튼어린이집의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은아 선생님이 복귀하시고, 하연주 선생님이 반일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 경기지부 모자소녀 임미화 선생님이 주행연습중입니다. 안전운행 기도 드려용.

휴직합니다

- 최미라 광주전남지부장이 오랜 현장교사를 잠시 접고 자유의 몸에 들어갑니다. 걱정 마세요. 보육활동을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상근지부장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실 거라네요. 그간 어린이집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자주 비요.
- 서울지부의 황호정 선생님과 권혜정 선생님이 어린이집을 그만 두고 잠시 쉬려고 합니다. 쉬는 동안 진정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힘차게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 서울지부 김정은 선생님이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올해 잘 쉬시고 내년엔 더욱 업그레йд 된 건강교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 서울지부 김미나 선생님이 휴직을 하시네요. 임신과 출산을 위한 휴직이라는데 올해 인구변동이 그 덕 가정에 꼭 있기를 기원합니다요!!!
- 부산 툼튼이 어린이집의 김양희 선생님이 3월부터 출산휴직에 들어갑니다. 잘 쉬시고요 건강한 아이 쑥쑥 잘 낳으세요.
- 부산지부 포구나루 어린이집에서 근무하

시던 박경미, 김지현 선생님이 그만 두셨습니다. 결혼준비를 하시기 위해서라네요. 아직 남은 잡지 않았구요. 알찬 결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폐유를 빙니다

- 부산지부 칙칙폭폭 어린이집 장정숙 선생님이 아버지께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결과가 좋으시다네요. 장정숙 선생님이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부 이교진 선생님이 충농증으로 고생하고 있대요. 충농증을 치료할 수 있는 비법을 알고 계신 분들~ 이교진 선생님께 교육연락 주세요.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 부산지부 칙칙폭폭 김성희 선생님의 시아버님이 지난 3월 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이 임신 8개월째라 몸도 무거운데 큰 일을 당하셔서 몸이 좀 안좋으시대요. 얼른 몸 추스리길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빙니다. 김성희 선생님은 3월 17일부터 출산휴직에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기원 선생님, 서은희 선생님, 이경녀 선생님, 박정애 선생님이 그동안 각기 우리 회 공동대표, 교육센터장, 사무국장, 프로젝트간사로 수고하셨다가 이번에 그만두셨습니다. 네 분 선생님의 땀과 고민이 함께 했던 시간들 잊지 못할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회비를 내셨습니다

(02년 2월말 기준입니다 CMS출금보고는 1월 30일 이전 출금액 기준입니다)

(서울지부) 1월 일부

(인천지부) 1월 일부

(경기지부) 1월 일부

(부산지부) 1월 완납

(광주전남지부) 12월 완납

(평생회원)

최순옥 13차 14차 10만원

(회원회비)

서은희 1만원, 이성혜 1만원, 조선허 1만원, 하미선 1만원, 김지희 1만원, 이현주 3만원

(자료회원)

송미연, 반포청사어린이집, 만리어린이집, 태영어린이집

(후원해주셨습니다)

원명순 1만원, 김종원 3만원, 엄소현 1만원, 장성일 1만원 권성춘 2만원, 류호선 5만원, 김현순 1만원, 백선희 1만원, 오영숙 1만원, 한만우 1만원, 박차리 5천원, 김은주 5천원, 신주영 5천원, 김정윤 2만원, 김상우 3만원, 이주연 5천원, 김경인 1만원, 오윤정 1만원

〈본회1·2월 활동일지〉

1월	4일	교육위원회
		제3차 총준위
	6일	조직위원회
	11일	교육위원회
		제4차 총준위
	20일	집행위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구진모임
	25-26일	제7차 정기총회 및 수련회
	28일	사무국 대청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홈페이지 제작팀 모임
2월	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구진 2차 모임
	4-9일	사무국 일본출장
	10일	교육위원회
	12일	보육교사 자리찾기 1차모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팀 2차 모임
	15-16일	확대간부훈련 및 연석회의
	19일	"보육환경과 영유아의 건강" 강좌
	24일	정책위원회

편집부에서

땅도 공기도 하늘도 새로워지는 3월입니다.

『우리네 아이들』도 좀더 새로워지고자 합니다.

새로 마련된 '보육교사 상담실', 그리고 글쓴이가 바뀌는 '육아일기', '새로운 세상과 만나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포근하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철의 여인이라 불려도 아깝지 않을 이 경년 전 사무국장의 뒤를 이어 작년 송년호에 잠깐 도운 것을 빼고는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우리네 아이들』을 만듭니다.

다시 『우리네 아이들』을 맡게 되면서 예전과 달리 편집을 직접 하지 않는다는 안도감에 참 편하게 느껴졌던데 3월의 정가운데에 들어서서도 아직 원고를 훑고 있으니... 느긋하게 기획을 했어도 마감시한을 한참 지나서야 원고를 넘기는 건 7, 8년 전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습니다...

또 다시 '다음엔 꼭...'이란 다짐을 품어보는 3월입니다.

제1회 (1월 1일 ~ 1월 31일)		
일	월	주요내용
1월 1일	1월	제1회 정기회의
1월 4일	1월	교육위원회
1월 11일	1월	교육위원회
1월 18일	1월	교육위원회
1월 25일	1월	교육위원회
1월 31일	1월	교육위원회
2월 1일	2월	교육위원회
2월 8일	2월	교육위원회
2월 15일	2월	교육위원회
2월 22일	2월	교육위원회
2월 29일	2월	교육위원회
3월 1일	3월	교육위원회
3월 8일	3월	교육위원회
3월 15일	3월	교육위원회
3월 22일	3월	교육위원회
3월 29일	3월	교육위원회
4월 1일	4월	교육위원회
4월 8일	4월	교육위원회
4월 15일	4월	교육위원회
4월 22일	4월	교육위원회
4월 29일	4월	교육위원회
5월 1일	5월	교육위원회
5월 8일	5월	교육위원회
5월 15일	5월	교육위원회
5월 22일	5월	교육위원회
5월 29일	5월	교육위원회
6월 1일	6월	교육위원회
6월 8일	6월	교육위원회
6월 15일	6월	교육위원회
6월 22일	6월	교육위원회
6월 29일	6월	교육위원회
7월 1일	7월	교육위원회
7월 8일	7월	교육위원회
7월 15일	7월	교육위원회
7월 22일	7월	교육위원회
7월 29일	7월	교육위원회
8월 1일	8월	교육위원회
8월 8일	8월	교육위원회
8월 15일	8월	교육위원회
8월 22일	8월	교육위원회
8월 29일	8월	교육위원회
9월 1일	9월	교육위원회
9월 8일	9월	교육위원회
9월 15일	9월	교육위원회
9월 22일	9월	교육위원회
9월 29일	9월	교육위원회
10월 1일	10월	교육위원회
10월 8일	10월	교육위원회
10월 15일	10월	교육위원회
10월 22일	10월	교육위원회
10월 29일	10월	교육위원회
11월 1일	11월	교육위원회
11월 8일	11월	교육위원회
11월 15일	11월	교육위원회
11월 22일	11월	교육위원회
11월 29일	11월	교육위원회
12월 1일	12월	교육위원회
12월 8일	12월	교육위원회
12월 15일	12월	교육위원회
12월 22일	12월	교육위원회
12월 29일	12월	교육위원회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이 되시면.....

- 매월 1만원(연회비 12만원)+ 지부/지회별 일정회비를 납부합니다.
- 지부, 지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회원의 권리로써 사업에 대한 의견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지부/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판매자료 구입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준회원이 되시면.....

- 연 6만원의 회비+ 지부회비를 납부합니다.
- 중앙 및 지부, 지회의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원회원이 되시면.....

- 연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 격월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 1년 구독과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강좌와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이 되시면.....

- 월 5,000원 이상의 후원을 하고,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비납부는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으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2275-8505)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본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 e-mail: kdta@chollian.net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wawbest@jinbo.net